

碩士學位論文

有島武郎의 『或る女』 研究

- 주인공 요코의 心狀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成 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洪 銀 子

2005年 8月

有島武郎의 『或る女』 研究

- 주인공 요코의 心狀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成 俸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5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洪銀子の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인준함.

2005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有島武郎의 『或る女』 研究

- 주인공 요코의 心狀을 중심으로 -

洪 銀 子

濟州大學校 教育 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成俸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대표작인 『或る女』(어떤 여자)는 1911년부터 1919년까지 10여년의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일본의 본격소설이며 서양의 자연주의를 일본의 자연주의로 완성하였고, 현실에 대해서 사실주의자의 태도를 가지고 다가간 낭만주의로 보는 동시에, 일본 자연주의의 대표작으로 보고 있다.

『或る女』는 메이지 20·30년대(1890~1900)의 새로운 갈등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근대 각성기의 시대적·사회적인 상황이 아리시마의 고뇌를 통해 본격적인 소설로 탄생된 작품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권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或る女』에 녹아 있는 작품의 양상을 통해 아리시마가 전하고자 했던 불변의 메시지를 얻어내는 일은 필수적이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고는 주인공 요코(葉子)의 외부적인 사회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반항적인 심상(心狀)과 요코 자신의 본능을 가지고 외부환경에 대항하여 이반(離反)의 행보를 하게 되는 본능적 심상(心狀), 그리고 요코의 종말에 있어서의 죽음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심상(心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코는 일본의 각성기 초기에 나타난 자유인으로서 설정된 인물이다. 그녀는 급진적이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약속이나 규범에 대해 반항적인 자세를 보인다. 그녀는 젠더를 둘러싼 대립적인 분쟁과 전환의 시기에 제도의 틀에서 이탈하여 자유인으로서의 인생을 지향해 간다.

요코의 구라치(倉地)에 대한 사랑은 사다코(定子)에 대한 모성과 양립하여 갈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구라치에게로 귀착되어 간다. 그것은 기무라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속물 기독교인에 대한 확실한 이반(離反)의 실천이며 기무라를 희생시켜 사회의 인습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요코에게 있어서의 성(性)은 학식이 부족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데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아리시마는 요코의 본능적 사랑에 죽음도 본능적으로 작용하도록 구성했다. 그녀 자신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죽음을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는 그 물리적인 힘에 대해 반발한다. 요코 스스로가 죽음을 자신의 의지로써 좌우하려고 했고, 자기 붕괴를 회피할 수 있는 죽음의 세계를 회구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찾아온 죽음에 대해 반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유인으로서의 인생을 실천했던 본능생활자 요코는 신에 의한 심판을 받지 못하고 물리적인 판정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아리시마는 요코의 타의적인 죽음을 통해 육체적인 생의 마감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죽음 직전에 죽음에 대해 반발하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의지에 대해 끝나지 않은 지속의 의미를 그녀의 죽음에 부여했던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시대적 상황의 관점에서 요코의 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작가의 여성인식과 사회인식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었다.

<제 목 차 례>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작가 및 작품의 배경	1
2. 연구동향	4
3. 연구목적	6
II. 외계환경에 대한 반항적 심상	8
1. 사회상황에 대한 불만족	8
2. ‘습성(習性)적 생활자’에 대한 반항심	14
3. 여성의 노예적 상황에 대한 반발	20
III. 내면세계로의 이행에서 본 본능적 심상	26
1. 육체와 정신의 대립	26
2. 몽환(夢幻)을 통한 본능의 자각	31
3. 본능생활에 대한 집착	36
IV. 연옥(煉獄)세계에서의 죽음에 대한 심상	42
1. 병리적 현상에 대한 불안	42
2. 정신적 지주의 부재에 의한 좌절	46
3. 타의적인 죽음에 대한 반항	51
V. 결론	56
참고문헌	58
<Abstract>	63

I. 서론

1. 작가 및 작품의 배경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 : 1878~1923. 이하 아리시마라 칭함)의 『或る女』(어떤 여자)는 메이지 44년(1911) 1월부터 다이쇼 2년(1913) 3월에 걸쳐 『或る女のグリンプス』(어떤 여자의 환상 : 이하 グリンプ스라 칭함)라는 제명으로 『白樺』에 연재 되었던 것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다이쇼 8년(1919/3)에 『有島武郎著作集』 제8집으로 전편 1~21장이 간행되었고, 이어서 3개월 후에 『有島武郎著作集』 제9집으로 후편 22~49장이 속간되었다.¹⁾

아리시마는 이 작품에서 근대 일본사회에 있어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각에 이른 한 여성의 인생과 관련하여 파멸로 갈 수 밖에 없는 그 시대의 마지막 한계까지 추적해 나갔다.²⁾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메이지 20·30년대(1890~1900)의 상황은 겉으로는 근대화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모순이 전개되고 있었다. 아리시마는 메이지 20년(1890)에 학습원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소년기를 보낸다. 품행이 단정하여 황태자(후의 다이쇼 천황)의 놀이 친구로 발탁되어 토요일마다 궁에 드나들기도 한다. 당시 학습원은 황족들의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로 상류층 신분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학교였다. 아리시마는 당시 요코하마 세관장이던 부친의 교육에 대한 열의에 의해 순조로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학습원 생활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극히 도덕적인 소년으로 비춰졌지만 때로는 사춘기에나 있을법한 불량한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소년기를 보낸다. 그는 이 시기부터 조금씩 문학방면으로 관심을 굳히고 있었고, 메

1) 外尾登志美, “『或る女のグリンプス』から『或る女』へ,”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刊行会, 1986, p.77.

2) 정인문, 『일본근대문학사의 재인식』, 영한출판, 2001, p.125.

이지 29년(1899)에는 자신의 의지로 삿포로 농학교에 들어간다. 삿포로 농학교는 미국의 교육자 윌리엄 클라크박사가 창설한 학교로 당시 일본에서는 보기도문 자유로운 교육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였다. 그는 삿포로에서의 학교생활을 계기로 스승인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³⁾를 통해 기독교를 접하게 된다. 메이지 34년(1901)~35년(1902)에 1년 지원병으로서 입영하여 좋은 성적으로 견습사관에 임명되었지만 병역은 그에게 반 군국사상을 갖게 했다.⁴⁾

아리시마는 메이지 36년(1903)에 미국으로 가서 하바포드대학원(필라델피아)에서 경제, 역사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그 후 그는 하버드대학원(보스톤)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프랑크포드 정신병원(필라델피아)에서 간호부로 일을 하여 학비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리고 하버드대학원에서 가네코 기이치(金子喜一)⁵⁾를 알게 되어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한편 휘트먼의 시(詩)에 심취하기도 하였고 입센,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⁶⁾ 상당한 선진 사상을 갖추고 메이지 40년(1907)에 귀국한 아리시마는 일본의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사상을 전혀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 1908년 그는 삿포로 농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삿포로 독립교회의 일요학교의 교장으로 활약하기도 하지만, 유학시절부터 기독교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것이 점점 깊어져 1911년 결국 삿포로 독립교회를 탈퇴한다. 그에게는 직업과 결혼, 그리고 일찌기 자신의 희망으로 시작한 농장문제⁷⁾, 기독교 배교(背教) 등 생활과 의식에

3) 종교인이면서 평론가. 삿포로 농학교 출신. 그리스도교에 대해 무교회주의를 제창. 교육칙어에 대한 경례를 거부. 비전론(非戰論)을 부르짖음. 1891년 우치무라 간조로 인해 기독교 배척운동이 일어남. 亀井俊介, “日本のキリスト教の周邊,”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1978, p.33.

4) 古田精一, “有島武郎,”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77/4, p.176.

5) 가네코 기이치(1865~1909), 히구치 이치요, 구니키타 돗포와도 돈독한 관계였음. 1904년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보스턴으로 감. 하버드대학원에 청강생으로 입학함. 노동문제, 사회문제, 시정(市政)문제를 수강. 아리시마와 同期였음.

川上美那子, 『有島武郎と同時代文学』, 審美社, 1993, p.149.

6) 福田準之輔, “有島武郎,” 「国文学」, 学灯社, 1986/9, p.154.

7) 아리시마는 일찌부터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의 지위나 재산 등이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별개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함에 따라 자신의 특권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결국 1922년에 홋카이도의 가리후토(狩太)에 있는 농장을 소작인에게 나누어 주는 등 생활과 의식의 일치를 도모하는데 힘썼지만, 자기파산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다.

있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자신의 사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⁸⁾ 그 후 기독교에 쏟던 정열이 문학으로 표출되어 『그림스』를 시작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아리시마의 좌절은 『或る女』에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或る女』를 쓴 메이지 43년(1910)부터 다이쇼 8년(1919)까지라는 10년의 세월은 아리시마의 작가 생활을 거의 차지하고 있고, 이 작품은 아리시마의 문학전체가 관철되어 있다. 작가생활 최초로 「그림스」를 동인지 『白樺』⁹⁾에 연재했고, 『或る女』의 완결 후에는 장편소설 『星座』의 중절 이외에는 남긴 작품이 없기 때문에 『或る女』는 작가의 시작이고 말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아리시마 문학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리시마는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実篤)·시가 나오야(志賀直哉)를 알게 된 것과 동생 아리시마 이쿠마(有島生馬)·사토미톤(里見弴)이 시라카바(白樺)의 동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점 등이 인연이 되어 시라카바(白樺)에 참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라카바(白樺)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매월 작품을 발표해야 하는 월간동인지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或る女』는 『그림스』에서 비롯되어 완성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메이지 43년(1910)부터 다이쇼 8년(1919)까지였다. 당시 시대배경에는 대역사건¹⁰⁾이 있었으며, 겨울의 시대¹¹⁾가 계속되어 호헌(護憲)·보통선거 운동으로 사회가 떠들썩

中村光夫, 유은경 역, 『일본의 근대소설』, 동인출판, 1995, p.209.

8) 西垣勤, 『白樺派作家論』, 有精堂, 1981, p.13.

9) 메이지 43년(1910) 4월부터 다이쇼 12년(1923) 8월까지 발행했던 문예잡지, 다이쇼 시대에 들어서 점차 심경 소설적인 경향을 띤. 시라카바파의 인도주의는 나쓰메 소세키의 영향을 받았고 리더는 무샤노코지 사네아쓰였으며 예술적인 완숙을 보여준 인물은 시가 나오야였다. 시라카바파에는 사회적인 관심이 깊어 지식 계급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아리시마 다케오, 진실한 철학을 그린 사토미 돈, 정열적인 의지의 나가요 요시오 등이 있다.

佐藤亮一, 『日本文学小辞典』, 新潮社, 1975(昭和50), p.614.

10) 메이지 천황 암살계획의 발각에 의한 탄압사건. 1910년 일부의 사회주의자의 천황 암살계획을 이유로 많은 사회주의자·무정부주의자가 검거 되고, 26명이 대역죄로 기소, 비관계자를 포함 24명이 사형을 선고 받고, 다음 해 1월 幸徳秋水·宮下太吉등 12명이 처형됨. (広辞苑, 第五版)

11) 다이쇼 전반기의 일본사회주의 운동이 있었던 시기를 말함. 1910년의 대역사건이라는 대탄압 이후 사회주의 운동은 침체상태에 빠져든다.

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일본 국내에서는 유례없는 호황 속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세계대전의 종말과 함께 그 영향으로 인한 불황과 노동운동도 격화의 징조를 보이는 등 격동의 시대로 이어졌고, 아리시마에게 있어서도 내외적으로 다사다난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或る女』에 결부시켜 말한다면 『グリンプス』와 『或る女』는 쓰여진 시기와 시대 배경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을 아리시마의 이미지·사상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グリンプス』는 시대의 역풍 속에 쓰여진 반면, 『或る女』는 오히려 『グリンプス』에 비해서 순풍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쓰였다.¹²⁾

『グリンプス』를 발표한 후 『或る女』를 발표하기까지 6년이라는 제작기간의 공백을 거치면서 아리시마는 끊임없는 사상적 고뇌로 방황한다. 『或る女』는 이러한 아리시마의 정열과 고뇌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그의 대표작임과 동시에 시대적 맥락을 읽어내기에 충분한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메이지 근대 각성기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이 작가를 통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고찰해 볼 수 있다.



2. 연구동향

와타나베 요쿠카즈(渡邊凱一)는 『或る女』의 후편에 있어서 요코의 심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과 파멸의 드라마는 처절하고 뛰어난 리얼리티를 갖추었으나 근대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혹은 ‘자기’와 ‘사회’의 치열한 드라마를 그리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작품의 후편에서 작자가 요코와 일체화된 것 때문에 주관적인 심리소설로 퇴행한 것이라 보고있다.¹³⁾

니시카키 쓰토무(西垣勤)는 후편 후반부에 있어서 요코의 파멸모습은 작자가 요코와 합일해서 객관적인 리얼리즘을 잃어버렸다¹⁴⁾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或る女』

미시마 유키오, 『일본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정선태 역, 소명출판, 2002, p.37.

12) 高山亮二, 『有島武郎の思想と文学—クロボトキンを中心に—』, 明治書院, 1993, p.309.

13) 渡邊凱一, 『晩年の有島武郎』, 渡辺出版, 1978, p.126.

14) 西垣勤, 『有島武郎論』, 有精堂, 1971, p.166.

에 대해서 훌륭한 작품이지만 수수께끼를 많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깊이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리시마의 사상과 실생활, 논리와 실제, 성격에 있어서의 외향과 본심의 관계 등 아리시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있다고 했다.¹⁵⁾

『或る女』에 대한 평에 있어서는 전편과 후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서 어느쪽이 낫다고 평하기는 쉽지않다.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는 『或る女』에 대해서 그 풍부한 예술적인 천재성, 흐트러짐 없는 단련된 문장, 외면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인간을 보는 눈이 확실한 점 등 일본의 작가에는 유례없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또 『或る女』에 대한 재평론에서 작자는 요코와 함께 세간에 대항하여 칼날을 휘두르며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즉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소설이며, 작자와 여주인공이 하나가 되어 사회를 상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¹⁶⁾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문학이 일본의 사소설적 전통을 제치고 본격소설을 지향하는 경향 속에서 새롭게 『或る女』는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은 여성을 살리고 또한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아리시마에 대해서 일종의 전율, 부러움, 질투, 부끄러움이 뒤섞인 육체적 감정을 느낀다(여자에 관하여)라고 쓰고 『或る女』를 예찬했다.¹⁷⁾

에구사 미쓰코(江種満子)는 『或る女』에 대하여 근대 일본의 여성을 그린 소설로서는 가장 많은 문제를 던진 텍스트 중의 하나¹⁸⁾라고 했다.

노마 히로시(野間宏)는 아리시마의 소설 『或る女』를 일본의 장편소설 중에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는 일본 근대문학 속에서 장편소설도 이미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어서, 후타바테 시메(二葉亭四迷)의 『浮雲』, 시마자키 도

15) 三好行雄외, 『近代文学4』, 有斐閣双書, 1977, p.64.

16) 『現代日本文学全集21』, 「有島武郎全集」, 正宗白鳥, “『或る女』について,” 筑摩書房, 1954, p.4.

17) 川上美那子, “『或る女』の系譜,”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特集: いまなぜ有島武郎か」, 学灯社, 2003/6, p.110. (재인용)

18) 江種満子, 『ジェンダーで読む「或る女」』, 翰林書房, 1997, p.8.

손(島崎藤村)의 『破壞』, 『家』,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田舎教師』,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道草』, 『明暗』 등으로 헤아릴 수 있는 작품들 중에 아리시마의 『或る女』가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或る女』 그 안에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용해시켜 다시 한번 그 속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낼 정도의 열정이 담겨 있으며, 장편소설의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或る女』 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山健本吉編『日本の思想家』所収, 「有島武郎」)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¹⁹⁾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와 예술 평론가인 히라노 겐(平野謙)은 『或る女』를 일본 자연주의의 대표작이라고 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혼다 슈고(本多秋五)²⁰⁾는 『或る女』에 있어서 사실적이면서, 게다가 저변에 낭만주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모순이랄 것도 없으며, 대상의 면밀한 추궁(追窮)의 배후에는 어떤 관념적인 구성이 작용하고 있고, 아리시마가 본격적인 사실주의자였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라고 했다. 더욱이 낭만주의의 거대한 관념적 고양 없이 거대한 사실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관련에서는 사실주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야스카와 사다오(安川定男)는 『或る女』에 대하여 인간의 개성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본능적 충동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본능(本能)적 생활자의 전형이라고 할만한 여주인공을 내세워, 개성의 자유해방으로의 강한 희구와 욕구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고, 그 실태를 방해하려고 하는 습성(習性)적 생활자 및 지적(知的) 생활자로부터 오는 세간의 압박과 충돌이 만나서 생기는 알력갈등에 대해 시대와 사회를 배경으로 그려졌다²¹⁾고 하였다. 이와 같은 습성적 생활·지적생활·본능적 생활이라는 인간의 생활양상에 대해서는 아리시마가 『或る女』 출판 후 쓴 『惜しみなく愛は奪う』(아낌없이 사랑은 빼앗는다)에서 분류하고 있

19) 安川定男, “『或る女』論,” 『有島武郎論』, 明治書院, 1973, p.237. (재인용)

20) 시라카바와 연구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인류학적 等価」라는 말을 사용하여 보편적인 것을 전제로 문학을 논평함.

정인문, 『근대일본문학/연구방법론』, 제이앤씨, 2004, p.218.

21) 14번과 동일, pp.116~164. (재인용)

는데²²⁾ 이와 관련된 『或る女』의 연구성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3. 연구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본근대문학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대부분 어느 한 작가나 작품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에 관련되는 연구가 다른 작가나 작품연구에 비해 특별히 많다든가 하는 것은 폭넓은 일본 근대문학을 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범위를 넓혀 간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이 연구되어 오지는 않았지만 아리시마는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에도 무관하지 않은 작가이다. 아리시마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문학의 발전 정도를 짚어 보는데 의의를 둘 수 있고, 우리의 문학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편중된 연구 범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근대라는 새로운 갈등의 시대에 작가는 『或る女』를 통해 무엇을 표출시키고자 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의 격동기를 살아온 작가의 작품배경과 작품성은 물론, 현대사회의 인권의 미래 지향적 의식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일본근대문학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학적 발전양상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품 『或る女』에서 작품내용의 배경과 주인공 요코의 내외적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외계적으로는 사회환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반항적인 심상(心狀)을 고찰하고, 내면적으로 자

22) 습성적 생활은 외계의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활로 단지 과거를 반복하는 생활이고 돌과 같은 생활이다. 돌은 외계의 자극 없이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며 오랜 세월속에 저절로 없어져 간다. 지적 생활은 외계가 개성에 대하여 작용이 있을 때 개성은 이에 대해 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생활로 경험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외계와 충돌하고 경험의 결과 반성을 하게 된다. 본능적 생활은 외계가 개성을 향해 작용하지 않고 개성이 외계로 작용해 가는 생활이다. 즉 개성은 외계의 자극에 관계없이 자기 필연의 충동에 의해 자신의 생활을 개시한다.

16번과 동일, 有島武郎, “惜しみなく愛は奪う,” pp.386,389.

신의 본능을 가지고 외계환경에 대하여 이반(離反)의 행보를 하게 되는 심상(心狀)을 고찰한 후, 요코의 종말의 죽음과 관련된 심상(心狀)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시대의 상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텍스트는 『或る女 前篇』 『或る女 後篇』 岩波文庫, 岩波書店(1950/9/5 第1刷發行, 1968/8/16 第23刷改版發行, 1998/11/16 第37刷發行, 入力: 真先芳秋, 校正: 地田尚, ファイル作成: 野口)을 택하였고, 텍스트 인용의 번역은 곽하신 역, 『어느女人』, 乙酉文化社版(1974/19/20 發行)을 참고하였다.



Ⅱ. 외계환경에 대한 반항적 심상

주인공 사쓰키 요코(早月葉子)는 일본의 근대 각성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태어나 제도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 하는 반항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억압된 삶을 살지 못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억압적인 환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느끼게 된다. 그녀를 억압하는 외계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반항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상황에 대한 불만족

『或る女』는 여주인공 요코가 미국행 배표를 구하러 요코하마로 가기 위해 심바시 역으로 인력거를 타고 가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심바시 역에서는 고토(古藤)라는 청년이 요코를 도와 요코하마에 함께 가기 위해 먼저 나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기차가 발차 직전인데도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 인력거꾼과 고토와 개찰원을 대응시켜서 그려진 그녀의 태도와 언동으로 뻔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기차 시각이 상징하는 사회적인 약속과 규범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며, 세속의 상식적인 울타리 안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뻔뻔하다고도 거만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과격적인 여성임에는 틀림없다. 작자는 이 소설의 첫머리에서부터 이러한 그녀의 성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음을 다음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심바시(新橋)를 건널 때 발차를 알리는 두 번째 벨소리가 안개라 할 것도 없는 九월의 아침의 흐린 공기에 싸여 들려왔다. 요코는 대수롭지 않게 그 소리를 듣고 있었으나, 인력거꾼은 부리나케 달음질을 쳤다.(중략) 『빨리, 빨리! 빨리 나가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개찰원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청년의 앞에서 「아씨마님」이라고 불린 것과, 개찰원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까닭에 바늘 끝처럼 날카로운 신경은 여인을 단박 발끈하게 만들었다. 요코

는 이제까지 부지런히 옮기던 걸음을 딱 멈추고는 침착한 얼굴로 인력거꾼을 돌아보았다. (1장, 21)

(新橋を渡る時、発車を知らせる二番目の鈴が、霧とまではいえない九月の朝の、煙った空気に包まれて聞こえて来た。葉子は平気でそれを聞いたが、車夫は宙を飛んだ(中略)「早く早く、早くしないと出っちまいますよ」改札がたまらなくな
って痲癩声をふり立てた。青年の前で「若奥様」と呼ばれたのと、改札ががみがみ
怒鳴り立てたので、針のように鋭い神経はすぐ彼女をあまのじゃくにした。葉子は
今まで急ぎ気味であった歩みをぴったり止めてしまって、落ち付いた顔で、車夫の
ほうに向きなおった。 (1章, 1)

이와 같이 요코의 성격이 파격적임을 처음부터 짐작하게 하는 것은 필경 그녀의 심리상태가 상황에 따라 급진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발차 벨 소리에 인력거꾼은 허둥대며 쏘살같이 달리는데도, 태연하게 그 벨 소리를 듣고 있는 성격이라면 분명히 심상치 않은 인생이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작자는 요코의 성격과 운명을 내적인 요인과 외계의 사회적 조건과의 관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요코의 상을 만들어 감에 있어 작자 자신의 내면적 동기, 인생관, 이상에 객관적인 모습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회의 현실을 단지 세태풍속으로서 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비취냄으로써, 본격적인 낭만의 형태를 갖춘 소설적 세계를 불완전하게나마 실현하고 있다²³⁾고 할 수 있다.

와타나베 요쿠카즈(渡辺凱一)는 이런 상황에서 태연할 수 있는 그녀에 대해 “요코가 만일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녀의 마음이 조금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초연하게 발차소리를 듣고 있다. 이 태연한 묘사에도 이미 아리시마의 배려가 더해져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거만하고 자의식이 강한 그녀는 사회적인 규약이나 제약을 무시하고 살아가려는 자유인으로서 소설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²⁴⁾라고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카무라 신이치로(中村真一郎)는 그 때

23) 安川定男, “『或る女』論,” 『有島武郎論』, 明治書院, 1973, p.244.

24) 大里恭三郎, “『或る女』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學術文献普及会,

혹과 혐오 사이에서의 그의 정신적 동요가 점차적으로 그의 내부로 이야기를 키워 나갔다고 하였다.²⁵⁾

이 작품에서 요코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시기를 20세기 제1년, 메이지 34년(1901) 9월 25일로 설정한 점에 주목해 보면 요코는 실로 새로운 시기의 신여성처럼 보인다. 작자 스스로 요코를 일본에 있어 각성기 초기에 나타난 여인(『読売新聞』談話, 大正8/3/3)이라고 하였으며, 머리말에서 지기 싫어하고 예민한 급진적인 여성²⁶⁾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일찌기 그녀는 여학교 시절부터 반항적인 성격을 표출시키고 있다. 그녀는 여학교 시절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반항하고 있다.

우에노 음악학교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지 두 달 만에 두드러지게 숙달이 되어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혀를 내두르고 있을 때, 케벨 박사 한 사람만이 찌푸린 얼굴을 하였다. 그리곤 어느 날, 『네 악기는 손재주로 울리는 것이지, 천재로 울리는 것은 아니다.』하고 무뚝뚝하게 말해 버렸다. 그 말을 듣고는 『그렇습니까?』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곤 바이올린을 창 너머로 내던진 뒤 그대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도 그녀였다.(2장, 24)

(上野の音楽学校にはいってヴァイオリンのけいこを始めてから二か月ほどの間にめきめき上達して、教師や生徒の舌を卷かした時、ケーベル博士一人は渋い顔をした。そしてある日「お前の楽器は才で鳴るのだ。天才で鳴るのではない」と無夢想にいつてのけた。それを聞くと「そうでございますか」と無造作にいいながら、ヴァイオリンを窓の外にほうりなげて、そのまま学校を退学してしまったのも彼女である。) (2章, 3)

이와 같이 요코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학교교육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직접적인 반항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범한 성격이라면 자세를 고쳐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타협과는 거리가 먼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

1980, p.114. (재인용)

25) 中村真一郎, 『この百年の小説』, 新潮選書, 1974, p.46.

26) 山田昭夫, 『有島武郎』, 角川書店, 1983, p.155. (재인용)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이런 반항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윤리학자나 교육자, 가정에서 “여인국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6장, 48)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요코가 여인국에 갇혔을 때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그 범위 안에서 여성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국을 향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성격이 예민한 그녀는 이런 억압적인 틀 안에 자신을 묶어두려 하지 않는다.

메이지 초기의 여성교육이 기독교주의 학교에 의해 시작되어 여성들은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여성이 교육에 의해 자유로운 사고를 하게 되면서 여성용 잡지도 발간되기 시작한다.²⁷⁾ 이 시기는 근대일본에 있어서 젠더²⁸⁾를 둘러싼 대립적인 분쟁과 전환의 시기로 『여학잡지』²⁹⁾, 메이지여학교³⁰⁾, 『문학계』³¹⁾로 표상되는 낭만적·사랑의 전성기였다.³²⁾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유교사상을 축으로 천황제의 이념적 지배체계를 편성하고 있었고, 1899년(明治32)에는 고등여학교령이 공포되고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³³⁾에 의해 ‘良妻賢母’ 교육이 강조된다.³⁴⁾ 요코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억압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27) 『樋口清之のっぽん女性史発掘』, 婦人画報社, 1978/4~1979/1, p.278.

28) gender(사회적인 성 규범), 메이지 20년대의 종합잡지의 지면에는 두드러지게 <家庭>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남녀의 직분을 분할하여 고정화 시켜감과 동시에 <아내>의 역할과 그 국민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가정은 국가의 기본 단위이고 가족의 화목이야말로 국민의 지주가 된다고 하는 근대국가의 국민이념으로 강조하여 양처현모의 이념과 일체화 시켜 나갔다.

江種満子, 『ジェンダーで読む「或る女」』, 翰林書房, 1997, p.154.

29) 기독교에 기인한 여성잡지, 1884년 창간하여 1904년에 폐간됨. 이와모토 요시하루(巖本善治)의 편집으로 여권확장을 설파함.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등의 기고자를 모집하여 후의 『文学界』의 모체가 됨. (広辞苑, 第五版)

30) 1885(明治18)년에 설립됨. 기독교주의를 근본으로 한 근대적 교육 실시.

31) 1893년 창간한 문예잡지. 당시의 문단에 신선한 낭만주의를 도입함. 1898/1월 종간. (広辞苑, 第五版)

32) 川上美那子, “『或る女』の系譜,”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特集: いまなぜ有島武郎か」, 学灯社, 2003/6, p.111.

33) 양학자·교육가이며 일본 최초의 학술 단체인 메이로쿠샤(明六社)를 조직하여 계몽사상의 보급에 노력, (1832~1891). (広辞苑, 第五版)

34) 영국식 ‘현모양처’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일본의 천황중심의 가부장제도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양처’가 우선이고 ‘현모’는 그 다음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적용하게 됨. 宮城道子, 『近代女性史』, 現代書館, 1984, p.28.

불만을 품고 있다. 그녀가 약혼자 기무라가 있는 미국으로 갈 즈음해서, 일본에 남겨지게 될 두 동생의 교양과 교육에 관하여 학교교육이 진정한 의미로 행복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쨌든 현재 있어 본 바로는 이 두 아이를 그 곳에 들여보낼 생각은 없어요. 그 학교에서는 여자라는 것을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요코의 마음에는 불길과도 같은 회상의 분노가 타올랐다. 요코는 그 학교의 기숙사에서 하나의 중성동물로서 취급되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상냥하고 사랑스러우며 순진하고, 타고난 그대로의 아름다운 호의와 욕망이 명하는 대로 어렴풋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연모하기 시작한 열 두 세살쯤의 요코에게 학교는 기도와 절제와 감정의 억압을 강제적으로 두드려 넣으려고 했다. (8장, 61)

(「何しろ現在いて見た上で、わたしこの二人をあすこに入れる気にはなれません。女というものをあの学校ではいったいなんと見ているのでござんすかしらん...」こういつているうちに葉子の心には火のような回想の憤怒が燃え上がった。葉子はその学校の寄宿舎で一個の中性動物として取り扱われたのを忘れる事ができない。やさしく、愛らしく、しおらしく、生まれたままの美しい好意と欲念との命ずるままに、おぼろげながら神というものを恋しかけた十二三歳ごろの葉子に、学校は祈禱と、節欲と、殺情とを強制的にたたき込もうとした。) (8章, 25)

이와 같이 요코는 자신이 처했던 교육의 현실이 인간성을 비뚤어지게 한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 그 가르침에 있는 인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다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의식을 부당하게 압살하는 결과를 가져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³⁵⁾

사실상 아리시마는 미국 유학중에 처참한 러일전쟁의 보도를 접하고 괴로워했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나라가 전쟁에 대해 방관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는 태도에 초조함을 느낀 나머지 기독교를 떠난다. 그는 무의미한 살인에 강한 분노를 표하고, 세계의 평화는 각각의 마음과 마음의 맺음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35) 菊地弘, 『有島武郎』, 審美社, 1986, p.122.

강조한다. 『或る女』는 이와 같은 심정에서 어두운 힘에 이끌려 방황하는 요코에게 아리시마 자신을 실어 어두운 사회현실을 일깨우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국가의 폭력성이 드러난 시기에 여성의 비극을 한 몸에 짊어진 요코는 이러한 그의 어두운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요코는 국가에 의해 젠더가 급속히 제도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 반항하듯 어딘가 외국에 태어나 있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특히 부권적인 국가에서는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처지였다. 사실, 메이지 31년(1898) 메이지 민법 친족편 상속편이 공포되어, 장남의 장자 상속, 여성의 경제적 무능력, 이혼조건 등을 규정하여 부권적인 이에(家)제도³⁶⁾를 확립한 시기였다. 메이지 22년(1889)에 제정된 제국헌법은 천황의 뜻에 의해 제정됐다하여 흠정헌법(欽定憲法)이라 불리어졌고, 1898년에 공포된 민법과 나란히 민주헌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성의 삶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헌법은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여자는 그 범위에 들어 놓지 않았으며, 동시에 성립한 황실전범(皇室典範)에서는 황위의 계승은 남자에 제한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家)와 남성에 대한 관념은 국가의 기본방침이 되어 가족제도·절대불변의 친자(親子)제도 등으로 불리면서 일본 고유의 이에(家)의식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³⁷⁾ 야마다 슌지(山田俊治)는 20세기를 살았던 아리시마에게 있어, 국가라는 초월성은, 인도에 反하고 개인의 자유를 견제하는 것으로 의식되었다고 말한다.³⁸⁾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요코로서는 더욱 반항심만 커져 갈 뿐인 것이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그녀의 신분의 한계에 대한 심상을 묘사하고 있다.

여자의 신분으로 전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썸 치자!」 하고 배짱을 세우고 대했던 것이다. (중략)백지와도 같은 덧없는 고독감과 「벗을 지정이면 깨끗하고 산뜻하게 벌거벗어

36) 가족주의적인 성격으로 선조로부터 이어 받는 형태의 관념으로 사회질서를 뒷받침하는 원리로써 강조되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통제의 체제를 말함. 和田一外, 『日本研究-歴史・文化・政治・産業』, 東洋文庫, 1994, p.158.

37) 34와 동일, pp.56~57.

38) 山田俊治, “超越的なものへの闘い/有島文学の可能性,”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特集: いまなぜ 有島武郎か」, 学灯社, 2003/6, p.139.

보이자!」 하는 불과 같은 반항심이 두서없이 요코의 가슴을 식혀주기도 태워주기도 했다. (6장, 47)

(女の身として全財産に対する要求をする事の無益なのも知っていた。で「犬にやるつもりでいよう」と臍を堅めてかかったのだった。(中略)白紙のようなはかな
．．．．
い寂しさと、「裸になるならきれいさっぱり裸になって見せよう」という火のような反抗心が、むちゃくちゃに葉子の胸を冷やしたり焼いたりした。) (6章, 16)

이와 같이 요코의 마음에서 불과 같은 반항심이 솟구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녀는 여자의 신분적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여기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 고독감과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2. ‘습성(習性)적 생활자’에 대한 반항심

가라키 준조(唐木順三)는 『有島武郎集』의 ‘해설’에서 “아리시마는 사쓰마(薩摩) 무사의 혈통을 이어받아 엄격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어렸을 때는 효경(孝經), 논어를 읽었다. 그는 일상적인 습성적 생활에서 사대부가 갖춰야 할 것과 유교사상을 전수받았겠지만 의식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중압감을 느끼지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³⁹⁾ 이러한 아리시마의 습성적 생활에서 얻은 의식은 『或る女』에서 요코의 성장환경으로 반영되고 있다.

요코는 관습이라는 깨기 어려운 장벽과, 새로운 각성기의 또 다른 제도 안에서 억압적인 인습에 대해 반발하고, 더구나 기독교 사회라는 또 하나의 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환경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맹목적인 반발을 하면서, 전력(全力)을 다해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학대, 이소가와 여사의 술수(術數), 가까운 친척들의 압박, 사회의 감시, 여자에 대한 남자

39) 現代日本文学全集21, 『有島武郎集』, 筑摩書房, 1954, p.436.

의 턱없는 욕망, 여자들의 야합 등등”(20장, 151)의 가부장적·속물적인 것에 대해, 개성의 자유를 요구하는 적대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요코는 인습적인 사회환경과의 타협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이에 대해 맹목적으로 반발하지만 거기에 남겨진 자기(自己)는 완전히 고독하고 어떠한 방향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⁴⁰⁾ 요코는 기독교사회에서 자라났으나, 아시카가 학원에 다니던 중에 신에게 드릴 물건을 남자에게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 중성동물로 취급되어 창피 당한 후 문득 그녀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의 눈을 뜬 요코는 속물 기독교인들과 대치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속물 기독교인은 어머니 오야사(親佐)였다. 오야사는 기독교의 “부인동맹의 일에만 열중”(5장, 38)하고 “외국 선교사나 귀부인들을 끌어들이어 정략적으로 사업의 확장”(7장, 51)을 하는 사람이었다. 목사 우치다(内田)는 이러한 오야사에게 기독교의 정신을 무시하는 천하고 악한 태도라고 비난을 하기도 한다.

요코가 기베(木部)와 결혼까지 고집했던 것도 오야사의 속물근성에 대한 반항의식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반항을 통해 기베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본능이 발동하면서 어머니와의 타협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기베를 향한 보호본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여성의 본능이 난생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중략)사려 깊은 작전계획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할수록 요코는 기베를 뒤에서 감싸면서 용감하게도 연약한 여인의 손 하나로 싸웠다. (2장, 26)

(女の本能が生まれて始めて芽をふき始めた。(中略)冷静な思慮深い作戦計画を根気よく続ければ続けるほど、葉子は木部を後ろにかばいながら、健気にもか弱い女の手一つで戦った。) (2章, 4)

이와 같이 요코는 여성으로서의 기베를 향한 보호본능이 나타나면서 어머니

40) 山田昭夫, “有島武郎,” 「鑑賞 日本現代文学」, 角川書店, 1983, p.273.

오야사와는 순조롭지 못한 관계가 되었고, 반면 청일전쟁의 종군기자로서 경이적인 평판을 받으면서 귀국한 기베와의 관계는 열정적인 관계로 발전된다. 기베는 “스물다섯이라는, 그 무렵까지 열성적인 신자(信者)로서 청교도풍의 처신만을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2장, 26)고 있었기 때문에, 요코와의 첫사랑에는 지극히 진지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머니는 질투의 휘방을 놓았고, 목사인 우치다도 요코를 자신의 집까지 불러서 질투 강한 남자의 태도로 분노했다. 그리고 오야사가 요코에 대한 지나친 간섭의 원인은 자신의 성격을 지나치게 닮아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요코는 오야사에게 격심한 견제를 받게 되고, 견제를 받거나 억압이 있을수록 이에 대한 반항 또한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요코가 오야사로부터 받는 억압적인 상황을 다음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다.

요코의 성격이 어머니가 마련한 틀 속에서 놀랄 만큼 쑥쑥 성장 했을 때는, 어머니는 자기 이상의 신통력을 미워하는 마녀(魔女)처럼 요코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16장, 118)

(葉子の性格が母の備えた型の中で驚くほどするすると生長した時に、母は自分以上の法力を憎む魔女のように葉子の行く道に立ちはだかった。) (16章, 58)

이와 같이 어머니 오야사가 요코의 앞길에 제동을 걸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연약한 자신의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환경과 맞서 대항해 나간다. 그것은 구폐(旧弊)의 세속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축복받지 못한 결혼 생활은 이내 두 달 만에 끝이 났고, 얼마 후 요코는 기베의 아이를 낳지만 기베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머니에게도 기베의 아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어머니 오야사는 아이에게서 기베의 모습을 찾아내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가혹한 행위를 아이에게 행하려 한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권유로 아이는 유모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양친이 사망하자 어머니 오야사의 유언을 실천하겠다는 이소가와(五十川) 여사와 친척들은 강압적인 태도로 요코를 미국에 있는 또 한 사람의 속물 기독교인인 기무라(木村)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온갖 술수와 계략을 꾀했기 때문에 요코에게 그들은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날 저녁에 이모네 부부

와, 이소가와 여사, 고토, 두 명의 여동생 등 그 밖의 지인들이 모여 요코의 송별회를 가졌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속물이라 여겨지는 인간들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코의 마음은 굳어진 채 반항적인 태도가 되어 “기도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그만 두세요.” (8장, 64)하고 그들의 관례적인 행위를 거부한다. 친족과 이소가와 여사 등의 기독교 이해와 실천은, 대개 평온무사를 기원하는 미적지근한 것이고, 요코의 열렬한 태도, 비타협의 태도를 혐오할 뿐이기에, 요코는 그와 같은 기독교의 정신을 몹시 싫어했다. 요코는 충동적으로 그들과 대립하여 반항적 태도를 취한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복수하기 위한 생각이기도 했다. 요코는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의 생활에 있어서 속물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판과 반항적 자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⁴¹⁾ 요코의 속물 기독교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 작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인력거로 달렸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잘 알 수 없었지만, 시계탑 모퉁이를 돌아 큰길로 나서려고 하는데 그 모퉁이에 사람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뭣일까 하고 지켜보고 있노라니까요, 금주회(禁酒會)의 가두연설이었어요. 커다란 깃발이 두세 개 있고 임시로 갖다 놓은 테이블 앞에 우뚝 서서 정신없이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뿐이라면 뭐 별로 신기할 것은 없었지만, 그 연설을 하는 사람이……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야마와키(山脇)씨였어요! (중략)그것이 또 말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붉은팔처럼 목덜미까지 새빨개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면서 팔을 휘두르면서 떠들고 있는 것을, 정작 금주회원들은 어이가 없어서 병어리처럼 한쪽으로 물리나서 보고 있었으니, 구경꾼들이 와글와글 재미있다고 떠들어 대는 것도 오히려 당연 하잖아요? (중략) (8장, 59)

(車で駆け通ったんですから前も後もよく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大時計のかどの所を広小路に出ようとしたら、そのかどにたいへんな人ばかりですの。なんだと思って見てみますとね、禁酒会の大道演説で、大きな旗が二三本立っていて、急ごしらえのテーブルに突っ立って、夢中になって演説している人があるんですの。それだけなら何も別に珍しいという事はないんですけども、その演説をし

41) 植栗弥, 『有島武郎研究』, 有精堂, 1990, p.189.

ている人が……だれだと思いいなって……山脇さんですよ！ (中略)それがまた
 ね、いつものとおりに金時のように首筋までまっ赤ですの。『諸君』とかなんとか
 いてて大手を振り立ててしゃべっているのを、肝心の禁酒会員たちはあっけに取ら
 ．．．．
 れて、黙ったまま引きさがつて見ているんですから、見物人がわいわいとおもしろ
 がつてたかっているのも全くもっともですわ。(中略) (8章, 23)

이와 같이 요코는 속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태도에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다. 사실 메이지 26년(1893)에 야지마 가지코(矢島楫子)를 중심으로 조직된 일본기독교부인 교풍회(矯風会)⁴²⁾는 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금주운동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요코는 이러한 사회흐름의 분위기를 접하면서 그중의 형식적인 속물 기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 일타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리시마가 속물성 비판을 강렬한 모티브로 해서 이 작품을 쓰는 이상 그것은 필시 당시의 주체양상에의 자기비판을 동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니시카키 쓰토무(西垣勤)는 말한다.⁴³⁾ 아리시마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들 중에는 위선자가 많다⁴⁴⁾는 것을 요코를 통해서 말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개성을 압박하는 세속의 도덕, 습속, 편견에 대해 반발하고, 반항적인 성격의 여성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경로에서 그녀는 세간의 전근대성과 위선성을 적발해 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요코의 성격과 운명을 통해서 당시의 일본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⁴⁵⁾

아리시마에게 있어 “습속(習俗)”(11장, 85)을 거부하고 자아확립에 대해 회구하게 된 것은 미국 유학 중에 휘트먼에 의한 인간긍정, 그리고 여성해방 운동에 불을 붙인 입센의 인간해방이라는 근대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그는 기

42) 1911년에는 공창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음. 鹿野政直, 『近代日本思想案内』, 岩波文庫別冊14, 2000, p.146

43) 西垣勤, 『有島武郎論』, 有精堂, 1971, p.141.

44)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星野勇三, “有島のやうな人を造りたい,” 有精堂, 1986, p.275.

45) 安川定男, “『或る女』論,” 『有島武郎論』, 明治書院, 1973, p.240.

독교를 버리고 독립교회를 탈퇴한다.⁴⁶⁾ 그는 다이쇼 9년(1920)에 자유인(loafer)으로서의 『휘트먼에 관하여』에서, 그리스도와 그 제도화된 기독교와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생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회를 창시한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자유인의 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어느 특정 교회에 속하는 일이 없으며,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⁷⁾ 즉 비난 받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치다의 모델인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무교회주의의 영향도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아리시마는 내부생명을 억압하려는 모든 것들은 반역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가권력, 사회, 교회, 집, 제도, 습관, 자신이 속한 계급, 자신의 성격, 베르그송⁴⁸⁾의 영향으로 형성된 외적자아까지도 반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반역의 원초적인 동기는 영혼의 절대적 자유에의 회구라 할 수 있다. 요코의 습성적 생활자들에게서 받은 비참함은, 불행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발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 미국행을 결심하게 된다. 유산상속은 인척에게 맡겨 포기하고, 자유세계를 미국이라는 곳에서 찾기 위해 새로운 기대를 해보는 것이다. 요코는 반항하는 일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 반항에 의해 형성된 자아는 넓은 세계에서의 자유를 꿈꾸게 된다. 작자는 이에 대한 그녀의 자유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46) 12번과 동일, 1993, p.247.

47) 鈴木範久, 『内村鑑三をめぐる作家たち』, 玉川大学出版部, 1980, p.107.

48) Bergson, Henri(1859~1941) 프랑스 철학자. 부르주아적인 생활학의 대표자. 베르그송이 “생명의 약동”이라 일컬었던 정신적 힘은 모든 것에 관철되고 있다. 베르그송의 인간론은 그의 존재론에 밀착되어 있고 ‘생명의 약동’에 의해 일어나는 진화의 정점은 ‘제작하는 존재’인바 지속적인 진화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이다. 베르그송은 그의 인식론에서 운동과 발전에 대한 파악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오성은 공간에 대한 인식을 시간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을 수학적으로 셀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반면, 직관은 그 속에서 인식주체가 대상과의 동일성에 이르도록 하고 시간을 지속적으로 ‘파악케’ 함으로써, 현실을 연속적이며 무한한 창조적인 다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복, 『철학 대사전』, 동녘, 1997, p.503.

49) 文学研究資料刊行会,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田辺健二, “有島武郎の内部生命観,” 有精堂, 1986, p.213.

여자의 매력이라는 것이 습관적인 사슬에서 해방되어 그 힘만으로 일할 수 있는 생활이 그곳에는 있을 것이 틀림없다. 재능과 역량만 있으면 여자도 남자의 손을 빌지 않고 자신을 주위 사람에게 인정시킬 수 있는 생활이 그 곳에는 있을 것이 틀림없다. 여자도 가슴을 펴고 실컷 호흡할 수 있는 생활이 그곳에는 있을 것이 틀림없다. (11장, 85)

(女のチャームというものが、習慣的な絆から解き放されて、その力だけに働く事のできる生活がそこにはあるに違いない。才能と力量さえあれば女でも男の手を借りずに自分をまわりの人に認めさす事のできる生活がそこにはあるに違いない。女でも胸を張って存分呼吸のできる生活がそこにはあるに違いない。) (11章, 38)

이와 같이 요코는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의 세계로 가면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속물 인간들의 강압에 못 이겨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디엔가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무라와의 결혼을 앞둔 착잡한 심정을 견잡을 수 없어 어머니의 친구인 우치다를 찾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건을 더듬어 찾으려는 것 같은 심정으로” (7장, 52) 우치다를 찾아 갔지만, 그는 요코를 만나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한 요코의 실망은 쓰리고 아픈 것이었다. 아무도 요코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속물로 변해버린 기독교사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정신이 아쉬울 뿐 요코가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3. 여성의 노예적 상황에 대한 반발

아리시마는 그의 사상을 대변하게 될 여성을 일본의 각성기 초두에 세우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자의 노예인 것에서 오는 그녀의 성욕적 비틀어짐, 그것에의 본연적인 양상과의 상극이라고 하는 여성의 슬픈 운명을 그려 나갔다. 그것에 의해 작자는 사회와 시대를 치고자 했던 것이다. 각성기 초두의 여성인 요코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는 반응을 나타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그녀를 통해 사회현실의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시대의 복잡한 사회상황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작자는 요코가 살

아가는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을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면에는 그해 유월에 이토(伊藤)내각과 교체하여 나타난 가쓰라(桂)내각에 대해 여러가지 주문을 제시한 논문이 실려 있었고, 해외통신에는 중국영토 내에서의 일로(日露)의 경제적 관계를 설파한 치리코프 백작의 연설의 대강 등이 실려 있었다. 이면에는 도미구치(富口)라는 문학박사가 「최근 일본에 있어서의 소위 여성의 각성」이라는 연재논문이 실려 있었다. 후쿠다(福田)라는 여인의 사회주의자의 이야기와, 시가인(詩歌人)으로서 알려진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여사의 이야기 등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요코는 주의했다. (22장, 171)

(一面にはその年の六月に伊藤内閣と交迭してできた桂内閣に対していろ注文を出した論文が掲げられて、海外通信にはシナ領土内における日露の経済的關係を説いたチリコフ伯の演説の梗概などが見えていた。二面はいろ富口という文学博士が「最近日本におけるいわゆる婦人の覚醒」いう続き物の論文を載せていた。福田という女の社会主義者の事や、歌人知られた与謝野晶子女史の事などの名が現われているのを葉子は注した。) (22章, 3)

이와 같이 각성기 초두의 사회상황은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성(性)을 촉구하는 의식 있는 여성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존여비의 풍조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사회적 이념으로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다. 여류 민권가와 기독교부인 교풍회, 더욱이 『みだれ髪』(1901년) 등에 의해서 성의 관능과 걱정을 강조했던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⁵⁰, 대역사건 주모의 혐의로 메이지 44년(1911) 1월에 29세의 젊은 나이로 처형된 간노 스가(菅野須賀子, 1881~1911) 등은 각각 여성의 인권해방과 사회적 지위의 확립을 위해 생애를 걸어서 투쟁하고, 여성이 남성의 노예가 아니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고 실현하기 위해 귀중한 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본격적인 여성해방 운동은, 간노스가의 사후 히라쓰카 라이초(平塚雷鳥)를 중심으로 하는 『靑鞆』(19

50) 여성문제·정치·사회·교육·생활문제 등을 논함.

鹿野政直, 『近代日本思想案内』, 岩波文庫別冊14, 2000 p.270.

11년)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 되면서부터이다.⁵¹⁾

한편 낡은 인습적 구속에서 자아를 해방하고,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 진보에 기여한다고 하는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実篤)의 제창은 거의 시라카바(白樺)와 전체의 확고한 신념이고, 그들은 이 신념 위에 각자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시라카바(白樺)의 이념은 강한 개성을 찬미하고 주장하여 그 철저한 자기중심주의가 인류의 의지와 자연의 귀추가 합치됨으로써 인도주의의 색채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⁵²⁾ 이와 같은 시라카바파의 예술관·인생관은, 물론 아리시마의 내부에도 존재했지만, 한편으로 그는 시라카바파 중에서는 고립된 존재였고, 자유인이면서 비극의 햄릿적인 존재였다.

요코는 결혼이라는 것이 한 여자에게 있어 생활이라는 실제문제와 얼마나 결부되는지에 대해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리고 남자의 이면(裏面)에 대한 실망은 요코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작자는 실망스러운 남자의 이면 때문에 요코의 숨 막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요코를 확실히 점령했다는 의식에 젖어든 기베는 이제까지 꿈에서조차 요코에게 보이지 않던 연약한 약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략)이렇게 죽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리라. 요코는 답답한 심경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심경이 또한 기베에게 전달되었다. 기베는 차차 감시하는 눈으로 요코의 일거일동을 주의하게 되었다. 동서를 시작한지 보름도 되지 않아 기베는 자칫 고압적으로 요코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2장, 27)

.....
(葉子を確実に占領したという意識に裏書きされた木部は、今までおくびにも葉子に見せなかった女々しい弱点を露骨に現わし始めた。(中略)こうして死ぬために
.....
生まれて来たのではないはずだ。そう葉子はくさくさしながら思い始めた。その心持がまた木部に響いた。木部はだんだん監視の目をもって葉子の一挙一動を注意するようになって来た。同棲してから半か月もたたないうちに、木部はややもする

51) 渡邊凱一, 『晩年の有島武郎』, 渡辺出版, 1978, p.120.

52) 長谷川泉, 『近代日本文学思潮史』, 至文堂, 1985, p.68.

と高圧的に葉子の自由を束縛するような態度を取るようになった。) (2章, 4)

이와 같이 요코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남자의 이면에 대해 알게 되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기베의 아집과 봉건적인 요소를 자유에의 의욕을 가진 그녀로서는 허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엇갈림이 생기는 것은 애초부터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그녀는 기베와 이혼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원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유인으로서의 의식과 남자에 대한 불신은 결혼생활에서 체험한 상념(想念)이었다. 이후 요코는 사회적인 체험을 통하여 남자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되고, 남성에 의한 노예적 상황에 순응하고 있는 여성들의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 그러나 메이지 6년(1873)에 기독교의 해금과 더불어, 아내 측에서의 이혼소송이 허가되고 있기는 했으나 경제적으로 절대 무력한 여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여자라는 신분은 첩살이(妾奉公)의 매매용으로 이용되었고, 심지어는 결혼한 딸을 데려다가 돈을 받고 다시 팔아넘기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회풍조는 더욱 여자라는 신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⁵³⁾ 이러한 풍조의 배경에는 공창(公娼)제도⁵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에서 어느새 눈을 뜬 요코는 부끄러움도 없이 남자의 시중을 드는 여자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게 된다. 아리시마는 이 소설의 근저에 있는 사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남성에게 빼앗긴 여성은 남성에게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유일한 보물인 정조를 팔아야 했습니다. 생식에 필요한 이상으로 음욕을 가지고 남성을 자신과 연결시켜야 했습니다. (1919. 10. 19. 石坂養平宛書簡) (필자번역)

(何物も男性から奪はれた女性は男性に対してその存在を認めらるゝ為に性の唯一の宝な貞操を売らねばなりませんでした。生殖に必要である以上の淫欲の誘引を以て男性を自分に繋がねばなりませんでした。) (1919. 10. 19. 石坂養平宛書簡)⁵⁵⁾

53) 34와 동일, p.100.

54) 공인된 창기제도. 카마쿠라시대(1180~1333년)에 시작되어 1958년 매춘방지법의 실시에 의해 폐지됨. (広辞苑, 第五版)

55) 川上美那子, 『有島武郎と同時代文学』, 審美社, 1993, p.174. (재인용)

이와 같이 여자는 남자의 노예이며, 또한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은 오로지 음욕을 하나의 무기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남녀관계의 비극적 요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 대한 충동적인 복수심을 양성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후천적인 요인 외에 여성에게는 본능적인 남성에 대한 동경애착의 정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뒤얽혀서 복잡한 집착적인 복수, 복수적인 집착을 낳아 간다는 것이다. 아리시마는 본능적 생활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예술, 교육, 여성, 사회 등 인생의 제반문제를 논하고, 자기가 가진 사상의 정당성과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했을 것이다. 남녀·부부·가족은 사랑에 의해 맺어지는 신성한 단위이지, 사유재산, 자본주의, 국가의 소단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⁵⁶⁾ 또한 『或る女』 해명문 중의 하나로 우라카미 고사부로(浦上后三郎)⁵⁷⁾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或る女」에서 내가 독자에게 감명 받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현대에 있어서 여성의 운명의 비극적 슬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노예입니다. 그녀는 남자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 (필자번역)

(「或る女」で私は読者に感銘して欲しいと思ったものは、現代に於ける女の運命の悲劇的な淋しさといふ事でした。女は男の奴隷です。彼女は男に拠る事なしには生存の権利を奪はれてゐます。……) (浦上后三郎宛書簡, 大正8/10. 8)⁵⁸⁾

이와 같은 아리시마의 여성해방 사상은, 하버드대학 대학원 재직 중의 『러시아 혁명당의 노녀』(「露国革命党の老女」(『毎日新聞』明治38. 4. 5—10. 5回))의 마지막 회에, 그것이 인류의 연대책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서 강조하고 있다.⁵⁹⁾ 그리고 아리시마가 1920년에 쓴 『입센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실에서 남녀관계의 역사성 왜곡이라는 현상인식에 이르고 있다. 여

56) 12번과 동일, pp.312, 317.

57) 독일문학자·소설가, 본명은 五三郎. (1897/12~1962/7)

58) 山田昭夫編, “有島武郎,” 「鑑賞 日本現代文学」, 角川書店, 1983, p.152. (재인용)

59) 상계서.

기서 남자가 마음대로 정치, 법률, 도덕, 습관을 만들어 여자를 노예로 삼았고, 이 불공평한 남녀관계는 성적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생활의 부패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입센이 제시한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구시대와 신시대의 과도기에 있어서 인간의 비극을 지적하고 있다. 이 비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남성에게 빼앗겨 버린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여성의 유일한 보물인 정조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즉 성의 왜곡으로 발전해 가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고 아리시마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의 왜곡은 요코가 쿠라치를 자신 곁에 있게 하기 위해 본능 이상으로 자신의 몸을 혹사하게 되어 요코를 자멸로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도기에 관해서는 갑자기 구시대와 신시대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신시대로 이행할 때에는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시대의 습관에 제약시켜 비극이 생긴다는 인식이다.⁶⁰⁾ 따라서 충동은 느끼지만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육체를 가지고 남자에게 존재를 인정시키려고 하는 습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그 성의 왜곡 때문에 자멸해 가는 요코가 생겨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천황을 신성시하는 구헌법하에서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⁶¹⁾의 데모 크라시도 민주주의라 표현하지 못하고, 민본주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인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활기를 띠고 있던 노동운동의 조류 속에서도 그들의 염두에 있는 노예는 소작인·노동자 계급이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신매매에 의한 성적노예·공창(公娼)의 존재를 공인하고 있던 당시 일본의 사회적 배경 하에서는 본질적인 여성의 인권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기에는 시대가 너무 빨랐던 것이다.⁶²⁾

60) 中嶋照美, “有島武郎 『或る女』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普及会, 1980, p.105.

61) 식민지주의를 비판하였음. 鹿野政直, 『近代日本思想案内』, 岩波文庫別冊14, 2000. p.171.

62) 32번과 동일, p.316.

Ⅲ. 내면세계로의 이행에서 본능적 심상

가와카미 미나코(川上美那子)는 요코의 변화에서 우선 내부에 이상한 어두운 힘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요코는 그 내적충동에 떠밀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여인으로서 통일적인 시각에 의해 새로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적충동으로서의 성을 정착시켜 그녀는 생리적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⁶³⁾

아리시마는 베르그송의 『시간과 자유의지』에서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순수지속(純粹持續)⁶⁴⁾ 속에 자기를 되돌리는 일임을 발견한다. 순수지속, 즉 내적·심리적 시간 속에 자기를 돌려놓는 것에 의해, 해체한 자아·내부생명을 재생시켜, 자유를 획득하는 일, 이것이 아리시마가 진정으로 희구하는 것이다.⁶⁵⁾

요코는 인습에 못 이겨 미국에 있는 기무라와 결혼을 하기 위해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떠난다. 그러나 그녀는 긴 항해를 하는 동안 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배의 선장 구라치(倉地)에게 끌려 미국에 상륙을 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와 버린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요코의 내면의 심리적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육체와 정신의 대립

요코의 존재는 의식과 대립하여 무의식으로 움직여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기배와 헤어진 후 그녀가 남자를 적으로 의식하면서도 “자연의 작희(作戲)” (16장, 118)로 남자라는 존재가 없이는 한시도 지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는 회상의 인식은, 그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으로서 내적으로 구상화되고 있다. 야마다

63) 5번과 동일, p.176.

64) 순수지속은 우리들의 자아가 살아갈 때, 현재의 상태와 이전의 상태를 분리시키지 않을 때, 우리의 의식 상태의 연속이 취하는 형태이다. 순수지속은 명확한 윤곽도 없고 수(數)와도 유사성이 없는, 상호 용해되고 침투된 질적인 변화들의 연속일 뿐이다. 앙드레 베르제즈 외, 남기영 역, 『인간학·철학·형이상학』, 삼협종합출판부, 2002, pp.103~104.

65) 49번과 동일, p.214.

슌지(山田俊治)는 이와 같이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에 연관하여 요코 상을 정립하고 있다. 그녀의 내면의 의식과 무의식이 괴리하여 존재하는 양상은 몽유병자처럼 빠진 환상 속에서도 깨어있는 의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 깨어있는 의식은 승선한 후부터 구라치에게 기울어지는 마음을 포착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⁶⁶⁾ 기배와 헤어진 요코는 여성의 슬픈 운명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의식으로 제어할 수 없는 본능의 힘을 내부에 숨긴 채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⁶⁷⁾ 그야말로 원치 않는 생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녀로서는 수동적인 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그녀가 구라치를 처음 만난 이후 무의식 중에 자석에 이끌리듯이 남자에게 끌려가면서, 한편 의식의 표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발하고 있었다.

동물적인,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해결 것인지 알 수 없는 일개 사무장에게 무슨 흥미가 있다는 거지? 저런 인간에게 마음이 끌릴 정도라면 나는 벌써 옛날에 즐겨 기무라의 애정에 안겨 있을 거야. (14장, 103)

(動物性の勝った、どんな事をして来たのか、どんな事をするのかわからないよなたかが事務長になんの興味があるものか。あんな人間に気を引かれるくらいなら、自分はとうに喜んで木村の愛になずいているのだ。) (14章, 49)

이와 같이 요코가 의식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동적인 삶에 의해 능동성을 발휘하지 못한데서 오는 소극적인 심상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무의식⁶⁸⁾ 쪽으로 끌리는 힘이 현재화되면서 능동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의식에 의해서 자기의 생을 되돌려보려고 무의식의 힘에 저항해 온 요코의 자존심은 점점 무너져

66) 山田俊治, 『有島武郎<作家>の生成』, 小沢書店, 1998, p.178.

67) 49번과 동일, p.124.

68) 무의식은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억압되거나 금지되는 충동과 욕구를 포함하는 정신의 한 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억압과 금지의 효과는 의식적인 상태에서 신경증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적 정신세계와의 관계에 연관된 역동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탐색했으며, 인간사에 존재하는 비합리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밝혔다. 데이비드 스탯, 『심리학 용어사전』, 정태연 역, 끌리오, 1999, p.57.

가게 된다. 이러한 그녀의 무의식 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심리상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해도 그러나 요코에게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 사무장에게 가장 관심이 쏠렸다. 그럴 까닭, 이유가 있을 턱이 없다고 스스로를 닦달해 보아도 아무 소용도 없었다. (14장, 106)

(どうしてもしかし葉子には、船にいるすべての人の中で事務長がいちばん気になった。そんなはず、理由のあるはずはないと自分をたしなめてみてもなんのかいもなかった。) (14章, 50)

이와 같이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구라치는 요코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쾌감마저 느끼게 된다. 의식은 점점 무의식의 힘에 의해 밀려나게 되고, 결국 구라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그녀는 이겼다고 외친다. 그 외침은 의식의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녀의 사회의식에 대한 비평을 기축으로 한다면 여성을 압박하는 남자를 적으로 도전하고 있던 그녀가 구라치의 포로가 되어 사회성을 상실해 가는 패배의 과정을 그린 것에 이 작품의 주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애초에 의식 속에 구라치와 같은 왕성한 남성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구라치와의 격렬한 사랑은 적어도 그녀에게 있어 어쨌든 승리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⁶⁹⁾ 이러한 그녀의 심상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죽일 테면 죽여! 죽어도 좋아! 죽어도 끝끝내 미워할 테니까, 봐! 나는 이겼어. 이렇게 슬픈 것을 왜 얼른 죽여주지 않지? 이 슬픔 속에 언제까지나 잠겨 있고 싶은 거야! 얼른 죽고 싶단 말야…… (15장, 115)

(「殺すなら殺すがいい。殺されたっていい。殺されたって憎みつづけてやるからいい。わたしは勝った。なんといっても勝った。こんなに悲しいのをなぜ早く殺

69) 大里恭三郎, “『或る女』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普及会, 1980, p.117,

してはくれないのだ。この哀しみにいつまでもひたっていたい。早く死んでしまいたい。……」) (15章, 56)

이와 같이 요코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두운 힘이 능동적으로 작용할 때 그녀는 생명의 활력을 띠게 되고, 이와 동시에 무의식의 세계로 끌려감으로써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올러지면서 생과 사의 양립성을 보이게 된다. 그녀는 어두운 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의 내부분열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그녀가 무의식으로 끌려가는 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의식의 제어를 이탈해 가는 과정은 보다 점진적으로 격고 있다.⁷⁰⁾ 다음의 예에서 그녀의 의식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요코는 그가 하라는 대로 응할 밖에 방법이 없었다. 「당신은 결국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하고 사무장이 이야기 속에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 요코의 마음을 일종의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앉을 줄 알아?」 하는 남자에 대한 습관적인 반항심은 까닭도 없이 무너져 있었다.(15장, 112)

葉子はそのいいなり放題になるよりしかたがなかった。「お前は結局はここにすわるようになるんだよ」と事務長は言葉の裏に未来を予知しきっているのが葉子の心を一種捨てばちなものにした。「すわってやるものか」という習慣的な男に対する反抗心はただわけもなくひしがれていた。(15章, 54)

이와 같이 요코는 세상에 무서운 것은 남자라고 여기던 의식을 포기하고 억압되어 왔던 무의식을 해방시키게 된다. 그녀는 외계환경에서 벗어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두운 힘에 이끌려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내면의 세계로 전환하여 가는 것이다.

아리시마는 육체와 정신, 과거와 현재라는 이원 대립적 갈등의 구도에 자기(自己)를 용해시켜 넣으려 했고, 낭만주의와 사실주의(寫實主義)의 일원화가 가능했다면 훌륭한 사소설이 되었을 것으로 니시카키 쓰토무(西垣勤)는 보고 있다.⁷¹⁾

70) 49번과 동일, 山田俊治, “『或る女』前編の改稿問題,” p.122.

71) 西垣勤, 『有島武郎研究』 「『或る女』論」, 右文書院, 1972, p.343.

아리시마는 현실적으로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일원론적 생을 추구했던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는 그 주인공을 인격 대 외계환경의 대립과, 인격내면에 있어서의 이원론적 분열이라고 하는 이중의 2항 대립의 토대로 조형하고 있고, 더욱이 그 작품세계가 주인공에게 덮치는 이중의 2항 대립에 의해서 움직여져 간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⁷²⁾

아리시마는 구라치를 향한 사랑도, 사다코에 대한 모성도 요코의 내면에 있는 필연적인 힘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본능적인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코는 이 두 개의 집착에 의한 내부분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⁷³⁾ 한편 요코에게는 모순적인 상황의 극복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음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다.

두개의 모순이 요코의 마음속에서 태연히 양립하려고 하고 있었다. 요코는 이 두개의 모순을 비교적 어렵지도 않게 분류해서 다루는 이상스런 마음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다. (24장, 182)

(二つの矛盾が葉子の心の中には平気で両立しようとしていた。葉子は眼前の境界でその二つの矛盾を割合に困難もなく使い分ける不思議な心の広さを持っていた。) (24章, 10)

이와 같이 요코는 내면에 양립하려는 모순을 어렵지 않게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남성에 대한 일체화의 바램과 지배욕이라고 하는 양면지배적인 감정을 요코의 내적분열로 잡고, 거기에 인간의 자립과 귀속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요코는 자아(自我)와 모성의 분열이라고 하는 여성 고유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코는 자신의 딸에 대한 애착을 구라치에게 적용해서, 구라치의 배후에 숨어 있는 3명의 딸과 그 어머니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의심과 질투의 광적착란을 일으키고 만다. 후반에서 종종 강조되고 있는 요코의 열등감이라는 것은, 구라치와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72) 菊地弘, 『有島武郎』, 審美社, 1986, p.47.

73) 江藤茂博, “『或る女』・後編の構成に関する試論—木部孤節と定子形象の意味—,”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1986/6, p.57.

기인하기보다, 그녀의 심적 심층에 있는 모권적 공동체의 견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거의 등장하지 않는 사다코와, 사진에서 밖에 나타나지 않는 구라치의 세 명의 딸과 그 어머니는 텍스트의 숨겨진 힘으로 여주인공의 생애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⁷⁴⁾ 요코가 일본으로 돌아와 구라치와 함께 스키야초(透矢町)의 숙소에 숨어 있는 무렵부터 갑자기 리듬은 변해간다. 벌써 습성적 생활·지적 생활에의 반항이라는 것도 무의미화 되어, 점차 영육(靈肉)의 일원화를 위한 일편단심의 몰입이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존재로서의 자기라고 하는 시점이 완전히 버려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요코의 본능생활의 양식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구라치라 해도 어디까지나 타자임에는 변함없는 것이다. 타자인 이상 요코가 그와 관계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자기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만 있을 수 있다. 작자의 눈은 이 인간존재의 본체론적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자신이 영(靈)적인 세계에 동화할 수 없고 빼앗지 못하는 타자로서의 구라치가 생생하게 호흡하는 인물인 이유도, 분명히 영(靈)의 세계와 본능에 이끌리는 자기와의 관계가 극적갈등의 긴장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즉 타자의 존재성이 요코의 심리상태에 의해 부각된다고 하겠다. 요코는 타자를 자기와 연결시킴으로써 내면의 갈등을 일으킨다. 자기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존재로 본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공간을 예상하게 된다. 그리고 영(靈)을 순수지속(純粹持續)·순주관(純主觀)으로 본다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모순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모순을 아리시마는 일원화 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 모순을 일원화 시키지 못한 아리시마에게 그 충격은 매우 큰 것이었다.

2. 몽환을 통한 본능의 자각

아리시마는 관념주의자이기 때문에 요코 또한 관념상의 인물로 창조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아리시마의 사상을 대변할 수 있는 관념의 세계, 즉 요코의 세계는 관념적 차원에서도 파헤쳐 봐야 할 것이다. 관념의 세계는 내면세계에

74) 川上美那子, “暗喩(メタファー)としての<或る女>,”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1991, p.72.

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요코의 관념세계에서의 본능생활이 가능한 상황은 어떠한 갈등을 보이며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지마호가 요코하마를 떠나 긴 항해를 하는 동안 요코는 현실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회상을 되풀이해 나간다. 그리스도를 연모하여 뜨개질을 열심히 하던 소녀가 환상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기베와의 추억 속에서 티 없는 소녀의 모습도 환상이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환상은 결국 구라치에게로 연결되면서 귀착되고 있음을 다음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환상이 혹은 차례차례로, 혹은 중복이 되어 회색 안개 속에 움직이며 나타났다. 그리고 기억은 점차로 과거에서 현재로 가까이 다가왔다. 문득 사무장 구라치(倉地)의 거무스름하게 탄 얼굴과 그 넓은 어깨가 생각났다. 요코는 생각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흠칫해졌고, 그 환상은 슬그머니 사라지며 기억은 다시 먼 과거로 돌아갔다. 그것이 또 차차 현재의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온다고 여겨지자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라치의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11장, 81)

(そんな幻像があるいはつきつぎに、あるいは折り重なって、灰色の霧の中に動き現われた。そして記憶はだんだんと過去から現在のほうに近づいて来た。と、事務長の倉地の浅黒く日に焼けた顔と、その広い肩とが思い出された。葉子は思いもかけないものを見いだしたようにはっとなると、その幻像はたわいもなく消えて、記憶はまた遠い過去に帰って行った。それがまただんだん現在のほうに近づいて来たと思うと、最後にはきっと倉地の姿が現われ出た。) (11章, 36)

이와 같이 구라치에게 귀착하는 집착심으로 요코의 표층의식에 있어서 갈등의 추이가 전개되고 있다. 그녀는 바다의 소리에 공명하면서 외부세계의 자극에 몸을 맡겨, 자유연상적인 이미지의 흐름에 의식을 눈뜨게 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간다. 환상 속에서 구라치의 모습이 마지막에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요코에게 급박하게 클로즈업 된 이미지이고, 요코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긴 구라치의 존재감의 상징적 표현이다.⁷⁵⁾ 이러한 존재감의 상징

75) 山田昭夫編, “有島武郎,” 「鑑賞 日本現代文学」, 角川書店, 1983, p.170.

적인 표현과 그녀의 심리적인 갈등은 바다의 소리와 어우러진 환상 속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사무장이나 타가와 부인 따위가 이토록 나를 번민에 빠지게 하는 거지? 미워! 무슨 인연으로」 요코는 자신을 이렇게 힐난 하면서도 남자의 눈을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한 요염한 기색을 저도 모르는 동안에 윗 눈가에 모으며 그것을 맞이하려고 하자, 해를 향해 눈을 감았을 때 무늬를 그으며 흩어져나오는 저 이상한 갖가지 빛깔의 광체(光体),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뻑뻑하게 물려와서 마음을 둘러쌌다. 「야아, 야! 야, 야아!」……요코는 저도 모르게 발끈 화가 치밀었다. (13장, 96)

(「なんで事務長や田川夫人なんぞがこんなに自分をわずらわすだろう。憎らしい。なんの因縁で」葉子は自分をこう卑しみながらも、男の目を迎え慣れた媚びの色を知らず知らず上まぶたに集めて、それに応じようとする途端、日に向かって目を閉じた時に綾をなして乱れ飛ぶあの不思議な種々な色の光体、それに似たものが繚乱として心を取り囲んだ。星はゆるいテンポでゆらりゆらりと静かにおどっている。「おーい、おい、おい、おーい」……葉子は思わずかっ腹を立てた。) (13章, 45)

이와 같이 해상에서 요코를 환상 속으로 유인하는 것은 바다의 소리다. 요코의 심층심리에 있어서의 갈등은 바다의 소리와 의 상관에 의해 의식하의 미묘한 정조를 암시하고 있다. 요코가 바다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끈 화가 치밀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요괴스런 것들의 기분 나쁜 소리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요코 자신이 마음의 신음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혐오와 경멸감이기도 하다. 물론 그 분노의 계기가 되는 것은 요코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현실의 구라치의 이미지이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구라치에게 본능적으로 요염한 빛을 나타내려고 하는 환상속의 요코 자신이다.⁷⁶⁾

아리시마는 육체와 정신에 있어서의 모순과 통합의 문제를 몽환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하고 있다. 요코는 바다의 소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와 의 결합을 갈

76) 상계서, p.171.

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계속되는 구라치에 대한 몽환에 의해 요코는 자신의 개성이 그를 절대적 존재로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⁷⁷⁾ 바다 위에서 요코가 듣는 바다소리의 환상은 보다 근원적인 모티브로서 아리시마의 생의 고통이 반영된 것이다.⁷⁸⁾

작자는 이와 같은 바다의 소리와 관련된 환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환상으로 붉은 옷의 의미지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요코의 환상 속에서 붉은 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요코의 환상은 감감한 기억의 동굴 속을 좌우로 허위적 거리며 속으로 속으로 자꾸 더듬어 들어가고 있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밑바닥의 밑바닥으로 또 밑바닥이 있는 미로(迷路)를 조심조심 따라 들어가니, 끝도 없이 나타나는 사람의 얼굴들 중 가장 깊은 안쪽에, 붉은 옷을 길게 입은, 눈이 부시게 빛나는 남자의 모습이 보여 왔다. (중략) 문득 요코는 다시 붉은 옷을 입은 남자를 보았다. 사무장의 얼굴이 붉은 옷 위에 아주 어울리게 올라 앉아 있었다. 요코는 질겁을 했다. (13장, 97)

(葉子の幻想は暗い記憶の洞穴の中を右左によろめきながら奥深くたどって行くのだった。自分でさえ驚くばかり底の底にまた底のある迷路を恐る恐る伝って行くと、果てしもなく現われ出る人の顔のいちばん奥に、赤衣着物を裾長に穿着て、まばゆいほどに輝き渡った男の姿が見え出した。(中略)ふと葉子はもう一度赤衣着物の男を見た。事務長の顔が赤衣着物の上に似合わしく乗っていた。葉子はぎょっとした。) (13章, 45)

이와 같이 요코는 밑바닥에 있는 미로(迷路)의 끝에서 붉은 옷을 입은 남자를 본다. 이 붉은 옷이란 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시대의 일반 상식으로는 죄수복인데, 그렇다면 요코는 환상 속에서 구라치의 정체를 근성이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시점까지는 구라치에 대해서는 “동물적인,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해결 것인지 알 수 없는 일개 사무장” (14장, 103)에 지나지 않

77) 류리수,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어떤 여자(或る女)』小考,” 「일본근대문학산책 제5호」, 일본근대문학회, 1998, p.41.

78) 石丸晶子, “有島武郎・或る女,” 「国文学」, 学灯社, 1988/7, p.86.

기 때문에 미리 죄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요코하마의 여관에서 기무라의 친구 고토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 (5장, 44)라고 했던 요코 쪽이야 말로 죄 깊은 여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때 고토는 요코의 유혹을 완고하게 거절하고 “스스로 밖에 나가, 물건도 물건이지 하필이면 빨간 담요를 한 장 사가지고 돌아온” (5장, 44)것으로 대응했던 일이 있다. 이때 고토의 생각으로는 성서에 도시 바빌론의 은유인 음탕한 여자가 “진홍색 짐승에 타고 있고, 그 여자는 주홍과 진홍색 옷을 입고 있었다.”⁷⁹⁾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짐짓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결국 붉은 옷을 입은 구라치의 이미지는, 고토에게 죄를 범하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악마적인 것을 감추고 있는 요코의 성적감정의 투영임과 동시에, 구라치도 또한 요코와 동질의 남자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붉은 옷은 아담과 이브의 만남이라는 이미지와, 요코의 마음을 사로잡은 구라치의 눈이라는 두 개의 다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작자는 분열의 위험성을 숨기고 있는 인간관을 초기구조로써, 어디까지나 요코에게 위탁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⁸⁰⁾ 후쿠다 준노스케(福田準之輔)는 눈부시게 나타나는 붉은 옷의 이미지에 대해 기독교인인 약혼자 기무라와 요코 자신에 대한 죄의식으로 비취치고 있다고 했다.⁸¹⁾ 아무리 뻔뻔한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일말의 양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붉은 옷의 이미지라 보는 것이다.

요코는 최초의 만남의 전조인 것처럼 심리적 환상과 육체적인 실감 때문에 현실에 틀어 박혀 3일 동안 몸부림친다. 요코의 환상의 세계에서 마지막 닿는 곳은 언제나 구라치에서 멈춘다. 결국 요코는 그것이 억압할 수 없는 것임을 자각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몽환을 통해 무의식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영원히 생을 연소시키는 죽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요코의 체험이 몽환을 통한 간접체험이지만 무의식의 영역을 억압에서 해방하여 재생을 추구하려는 것이야말로 회상이 갖는 위상이라 할 수 있다.⁸²⁾

요코는 몽환의 영역에까지 굴욕을 숨기고 들어가서 성과 격돌하여 성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리고 굴욕은 “나는 이겼어. 뭐라고 해도 이겼어” (15장, 115)라고 하는 환희가 되어 “어떤 굴욕이라도 끝이라 생각해야지. 구라치를 얻을 수만 있

79) 김구인,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요한 묵시록 제17장,” 분도출판사, 2001, P.1388.

80) 山田昭夫編, “有島武郎,” 「鑑賞 日本現代文学」, 角川書店, 1983, p.172.

81) 福田準之輔, “「或る女」・有島武郎,” 「国文学」, 学灯社, 1991/1, p.72.

82) 49번과 동일, p.123.

다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포로가 받는 꿀보다도 더한 굴욕!” (16장, 121)으로 한번에 반전한다. 에구사 미쓰코(江種満子)는 한번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는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자부심은 굴욕과 열등감이 일치되어 근대 개인주의 시대의 남녀의 의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라 보고 있다.⁸³⁾ 후쿠모토 아키라(福本彰)⁸⁴⁾는 요코가 “이겼어”라고 하는 것은 여왕으로서의 자존심에 대한 만족이라고 했다.⁸⁵⁾ 그러나 그녀의 몽환과 굴욕은 자존심에 대한 만족보다는 그녀가 짙어진 육체(性)와 정신(모럴)의 싸움, 즉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생생한 자기와 종래의 위엄 있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장래에 임할 자세를 일으키고 있다⁸⁶⁾고 보는 것이 훨씬 재생(再生)적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몽환에 속하는 것과 굴욕에 속하는 것의 각 축의 재생을 위한 몸부림은 『或る女』의 작품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본능생활에 대한 집착

요코는 거듭되는 몽환 속에서 구라치에게 귀착되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미국에 있는 기무라에게로 향하지 않고 이반(離反)을 하게 된다. 그것은 기무라에게 연결된 속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반이기도 하다. 여기서 요코의 이반은 그녀의 의지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요코 내부의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어두운 힘의 위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어두운 힘에 이끌려 그녀는 본능을 실천하는 본능생활자가 되어 구라치라는 강한 남자에게서 자신을 확인해 가게 된다. 여기서는 요코 내부의 무의식속에서 선택된 그녀의 본능생활이 구라치에게 집착하여 어떻게 실천되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리시마는 유학을 하기 전에는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영향으로 열렬한 기독교인이었으나, 영육(靈肉) 이원의 분열을 고민하던 중에 유학을 하였고, 그때

83) 江種満子, “有島武郎-『或る女』/神近市子/伊藤野枝,” 「国文学」, 学灯社, 1992/11,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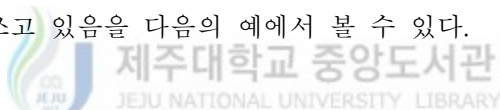
84) 就実大学人文科学部表現文化学科教授

85) 福本彰, “見事な錯覚の生の情念,”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85/4, p.152.

86) 江種満子, 『有島武郎論』, 桜楓社, 1984, p.24.

강렬한 일원적 생을 살아온 휘트먼과 해후(邂逅)하여 소생활 실마리를 잡았으며, 더욱이 귀국 후에는 베르그송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이론적 근거로써 본능적 생활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 본능적 생활론은 마침내 아리시마의 “생명 그것처럼 소중하게 생각” (43장)하는 사상이 되어 『或る女』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⁸⁷⁾ 『或る女』는 도덕, 지식, 인습이라는 지적생활과 인습적 생활을 깨고 질주하는 본능(무의식적 자아)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하여, 억압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성충동의 표현은 엘리스(Henry Havelock Ellis ; 1859~1939)의 『性の心理学的研究』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⁸⁸⁾

땀을 흘리고 출항한 후 요코와 구라치와의 만남을 작자는 “비로소 아담을 본 이브와 같이” (10장, 74)라고 쓰고 있다. 이는 구약성서 『창세기』 제1장의 하나님의 형상처럼 이것을 만들었고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과, 제2장의 여자가 남자의 늑골 하나로 만들어져,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구조자 또는 골육의 육체라고 하는, 그 어느 쪽이든 성서를 근거로 표현하고 있다. 작자가 성서에 근거하여 쓰고 있음을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까닭도 없이 기겁을 하고는 우뚝 서버렸다. 비로소 아담을 본 이브처럼 요코는 물끄러미 신기할 것도 없는 한 젊은이를 지켜보았다. (중략) 요코는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밑에 이상스러운 육체적 충동을 가볍게 느끼면서. (10장, 74. 75)

• • •

(なんという事なしにぎょっとほんとうに驚いて立ちすくんだ。始めてアダムを見たイヴのように葉子はまじまじと珍しくもないはずの一人の男を見やった。(中略)葉子は黙ったまま軽くなずいた、胸の下の所に不思議な肉体的な衝動をかすかに感じながら。) (10章, 32)

이와 같이 작자에게 있어서 ‘비로소 아담을 본 이브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

87) 石丸晶子, “有島武郎の方法 —リアリズムへの志向と本能主義の狭間から—,” 「国語と国文学」,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1989/5, p.47.

88) 小坂晋, “有島文学の性心理学的分析,” 『日本文学研究叢書』, 「白樺派文学」, 有精堂, 1974, p.64.

은, 남녀의 만남의 일반적인 비유이고, 이와 같은 요코의 구라치와의 만남은, 처음으로 단 한 번의 본능적 직각(直覺)으로써 이루어지는 생애의 운명적 만남을 시사하고 있다. 육체적 충동에 대한 표현은 엘리스의 이론을 적용한 경우이지만, 그러나 요코의 최초의 희미한 일체화의 바람은, 『창세기』 제1장과 제2장을 상기시키고 있다.⁸⁹⁾ 일체화하고 싶다고 바라는 요코의 격심한 사랑에의 희구는 끌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해서 애정의 포로가 되고 싶은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요코는 “될 수만 있다면 이 살이 두꺼운 남자다운 가슴을 물어 찢고 피투성이가 되어 이 가슴속에 얼굴을 묻어 넣고 싶다.” (26장, 203)는 심정으로, 그녀의 본능성이 넘치는 생은 일상적으로 둘러싸인 많은 경직된 조건을 도외시하고, 강한 육체(생명력)를 찾아서 비약(飛躍)한다. 직접 사회에 관련 지어 소생하려고 하지 않고, 육체에 의해 개인을 해방하고 생을 긍정한다고 하는 낭만적인 성격을 띠고, 갑자기 “대포와 같이 커다란 힘이 센 사람” (5장, 42)을 찾아 비약하는 것이다.

요코는 자신의 관능을 본능적으로 격렬하게 표출시킴으로써 스스로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즉, 그녀에게 있어 관능을 절제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한 그녀의 심상을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순수한, 그 대신 식지도 않고 뜨거워지지도 않는 애정이 뭐지? 사는 이상에는 사는 것 답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이상에는 목숨과 바꿈질을 할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24장, 182)

(純粹な、その代わり冷えもせず熱もしない愛情がなんだ。生きる以上は生きてるらしく生きないでどうしよう。愛する以上は命と取りかえっこをするくらいに愛せずにはいられない。) (24章, 10)

이와 같이 요코는 일찍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주위에 저항하던 의지력과는 달리 생활을 유지하려는 여자의 본능적인 성적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요코에게 평범한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죽음에 이르기

89) 山田昭夫編, “有島武郎,” 「鑑賞 日本現代文学」, 角川書店, 1983, p.168.

까지의 격심한 관능을 추구하는 요코에게는 평온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의 본능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삶의 본능을 대표하는 것이 성본능이고 죽음의 본능을 드러내는 것은 잔인성과 공격성이라 할 수 있다.⁹⁰⁾ 요코에게도 삶과 죽음의 본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꿀 정도의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정열을 불태우고 싶어 하는 것이다. ⁹¹⁾

요코는 “가장 소중한 것은 구라치라고 하는 정인 외에는 없었다” (30장, 229)고 여기면서 구라치를 선택하게 된다.⁹²⁾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하여 기베도 기무라도 요코에게는 버려야 하는 과거의 존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요코에게 있어 기무라는 세속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 구실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속물 기독교인에 대한 저주스러움이 기무라 일신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그에 대한 “배반자의 심경으로” (19장, 149) 기무라를 이용하게 된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모든 요인들을 기무라의 일신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요코에게는 과거의 모든 저주가 기무라의 한 몸에 모여 있는 것처럼도 생각되었다. 어머니의 학대, 이소가와 여사의 술수(術數), 가까운 친척들의 압박, 사회의 감시, 여자에 대한 남자의 턱없는 욕망, 여자들의 야합 등등, 요코의 적들을 기무라의 한 몸에 모두 뒤집어 씌워 그것에 여자의 마음이 짜낼 수 있는 온갖 잔학한 학대를 퍼부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20장, 151)

(葉子には過去のすべての呪詛が木村の一身に集まっているようにも思いなされた。母の虐げ、五十川女史の術數、近親の圧迫、社会の環視、女に対する男の覬覦、女の苟合などという葉子の敵を木村の一身におっかぶせて、それに女の心が企み出す残虐な仕打ちのあらん限りをそそぎかけようとするのであった。) (20章, 77)

90) 石丸晶子, 『有島武郎 一作家作品研究一』, 明治書院, 2003, p.174.

91) 유은경, “有島文学에 나타난 ‘性’의 양상,” 『일본어문학』, 일본어문학회, 1998, p.207

92) 田辺健二, 『有島武郎論』, 溪水社, 1991, P.59.

이와 같이 요코는 성을 무기로 하여 기무라를 희생시켜 사회의 인습에 대항하고 있다. 성은 배운 것도 변변치 못하고 아는 것도 부족한 그녀에게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녀는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의 힘으로 과거의 저주스러운 적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찾고자 하고 있다. 한편 그녀는 구라치를 악의 수렁으로 추락시켜 감으로써 세상을 향한 복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구라치의 매국노라는 악의 행적을 듣는 순간 내심 놀라면서도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코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런 곳까지 구라치를 밀어 떨어뜨리는 노릇은 그만큼 두 사람의 집착심을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요코는 무엇을 희생으로 하더라도 작열(灼熱)한 두 사람 사이의 집착관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한층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었다. (33장, 249)

(そこまで倉地を突き落とすことは、それだけ二人の執着を強める事だとも思った。葉子は何事を犠牲に供しても灼熱した二人の間の執着を続けるばかりでなくさらに強める術を見いだそうとした。) (33章, 48)

이와 같이 요코는 구라치에게 향하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구라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서 떠나 있던 요코 자신을 끌어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심리는 어떻게 해서든 구라치를 백치처럼 해버리고 싶다고 하는데 까지 이른다. 그러한 그녀의 심상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랑을 청한 자의 자격지심으로서 요코는 지금까지, 제가 구라치를 사랑한 정도로는 구라치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만 생각했다. 그것이 언제나 요코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고, 자기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좌처(坐処)까지 흔들리게 했다. 어떻게든지 해서 구라치를 백치처럼 만들어 버리고 싶었다. (34장, 252)

(恋をしかけたものの引け目として葉子は今まで、自分が倉地を愛するほど倉地が自分を愛してはいないとばかり思った。それがいつでも葉子の心を不安にし、自分というものの居すわり所までぐらつかせた。どうかして倉地を痴呆のようにしてしまいたい。) (34章, 50)

이와 같이 요코는 구라치와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그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집착은 구라치를 백치로 만들고 싶은 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만큼 불안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요코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숙명으로 여기고 육감적인 고흘(蠱惑)의 힘에 의지하여 구라치를 붙잡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다케시바캉의 밤 이후 겨우 후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 참회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녀에게 참회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 현실에 있어서의 여자의 불행의 원인이 단지 남자에게 매달려 구하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아리시마는 명확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다. 『或る女』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욕욕이 있어 남자에게 끌릴 수 있다⁹³⁾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



93) 宮本百合子, 『文学にみる婦人像』, 新日本出版社, 1973, p.56.

IV. 연옥(煉獄)세계에서의 죽음에 대한 심상

요코는 소녀시절부터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는 상대에 대하여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녀의 반항적인 성격은 그녀와 관련된 모든 외계의 환경을 상대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나타난다. 그러던 그녀가 기무라와 결혼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던 도중 무의식 속에 숨어 있던 본능이 발동하여 생의 행보를 돌리게 된다. 그녀는 자기라는 또 하나의 숨겨져 있던 무의식의 세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연옥(煉獄)⁹⁴세계로 다가가게 된다. 결국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 주지 않는 세속에서 마구 앞으로만 걸어 나가 무의식의 세계를 거쳐 다다른 곳은 연옥의 문턱을 넘어선 고통의 나락이었다.

연옥은 여러가지 면에서 중간적 장소이다. 시간적으로 그것은 개인적 죽음과 최후 심판 사이의 중간에 온다. 연옥은 이승에서 참회를 통해 이미 시작 되지만 궁극적인 정화는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비로소 이루어진다.⁹⁵ 자유인으로서 본능에 충실하던 요코가 연옥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병리적 현상에 대한 불안

야스카와 사다오(安川定男)는 아리시마가 다이쇼 5년(1916) 3월 중에 하벨록 엘리스⁹⁶의 『Studies in Psychology of sex』(『性の心理学的研究』)를 읽고 인간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지식으로 『或る女』에 역점을 두고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고,⁹⁷ 사사부치 도모이치(笹淵友一)도 전편에서 자아해방·자아확립이라고 하

94) 카톨릭에서 죽은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영이 불에 의해 죄가 정화된다고 믿는 곳. 천국과 지옥사이. (広辞苑, 第五版)

95) 자크리 고프, 『연옥의 탄생』, 최애리 역, 문학과 지성사, 1996, p.30

96) Henry Havelock Ellis(1859~1939) : 영국의 심리학자. 성을 과학적으로 고찰하여 性과학을 창시함. (広辞苑, 第五版)

97) 安川定男, “『或る女』論,” 「有島武郎論」, 明治書院, 1973, p.250.

는 근대정신사의 낭만주의 주제와, 후편에서의 현저한 히스테리증이라고 하는 병리에서 보는 여성의 비극과의 사이에는 곧바로 연결할 수 없는 틈새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⁹⁸⁾

프로이드는 히스테리 증상들이 무의식적 욕망과 억압사이에서 타협되어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즉 심적 갈등이 전환되어 신체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다.⁹⁹⁾ 요코의 건강상태는 자궁후굴증과 내막염이라는 육체적인 질환에 의해 신경증적인 히스테리라는 병리적인 상태로 심화되어 간다. 그녀는 생명과도 같은 관능이 병리적으로 퇴행되어 감에 따라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육체의 고통은 그녀의 시기심을 더욱 심하게 불러일으킨다. 다음의 예에서 그러한 양상을 알 수 있다.

오카나 아이코…… 여기까지 생각하자 요코는 꿈속에 있는 여인은 아니었다. 생생한 모습의 번뇌가 발연(勃然)히, 이를 악물고 매서운 목을 발딱 치켜드는 것이었다. 그것도 좋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라고 해. (45장 346)

(岡や愛子……そこまで来ると葉子は夢の中にいる女ではなかった。まざまざとした煩惱が勃然としてその歯がみした物すごい鎌首をきっともたげるのだった。それもよし。近くいても看視のきかないのを利用したくば思うさま利用するがいい。)
(45章, 105)

이와 같이 요코가 극심한 시기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구라치와의 관계를 불안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육체의 병리적 증상은 불안·우울·시기심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녀는 구라치와 동생 아이코 사이를 의심하고 질투를 느낄 무렵부터 격심한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구라치와의 사이에 의견충돌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고, 환상과 환각이 자주 요코를 엄습하여 마침내 육체적 고통과 어우러져 요코를 점점 쇠약하게 만든다. 아이코에

98) 상계서. (재인용)

99) 알랭 바니에, 『정신 분석의 기본 원리』, 김연권 역, 솔출판사, 1999, p.160.

대한 시기심은 관능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와 비교되기 때문에 나타내는 심상이다. 아리시마는 요코의 형상에 엘리스의 『Studies in Psychology of sex』 (『性の心理学的研究』)를 적용시켜 묘사하고 있는데, 요코의 히스테리 증상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원용하여 그려내고 있다.

히스테리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1)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병이라고 할 수 없는 성 기아와 관련되는 것과 (2) 여기에 계속되는 심리적 상처, 고통이 더해져서 생기는 병리적 히스테리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연애의 쾌락, 정열을 잃은 여성이나 문란했던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매춘부 등이 멋대로 발산한 정열과 방자했던 성생활에 대한 대가나 성교의 등가물로서 발작을 일으킨다고 한다. 더욱이 병리적 히스테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심리적인 성적충격, 특히 공포와 분노를 동반하는 충격을 강조한다. (필자번역)

(ヒステリーには二種類あって(一)異常ではあるが病気とはいえぬ性飢餓に連なるものと(二)これに間断なき心理的傷害、苦痛が加わって生ずる病理的ヒステリーがあるという。そして恋愛の快樂、情熱が失われた女性や爛熟した性生活から遮断された売春婦などがかっての情熱と放恣な性生活の代償やコイトスの等価物として発作を起こすという。更に、病理的ヒステリーの決定的要因として心的な性的ショック、特に恐怖と怒りを伴うショックを強調する。)100)

이와 같은 증상이 요코에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증상은 건강한 육체를 가진 동생 아이코를 상대로 질투를 강하게 나타낸다. 그녀에게 자주 엄습해 오는 환상도 이러한 병리적 히스테리에 기인하고 있다. 아리시마는 이에 대하여 엘리스의 설(說)을 원용하면서 그의 상상력을 구사하고, 훌륭하게 요코의 심리적 드라마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¹⁰¹⁾ “건강이 쇠약해지면 해질수록 이 초조감 때문에 요코의 마음은 설 수가 없었다.” (36章, 271) 이러한 그녀의 심상은 목숨과도 같은 관능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안심리로 나타나게 되고 그녀는 항상 구라치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모색해 낸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만큼의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패션으로 연출해냈

100) 渡邊凱一, 『晩年の有島武郎』, 渡辺出版, 1978, p.140. (재인용)

101) 상계서.

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요코에게로 집중된다. 작자는 그녀의 패션감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여배우다운 여배우를 가지지 못하고, 카페다운 카페를 가지지 못한 당시의 거리에서 요코의 모습은 눈부신 존재의 하나였다. 요코를 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눈을 크게 떴다. (36장, 272)

(女優らしい女優を持たず、カフェーらしいカフェーを持たない当時の路上に葉子の姿はまぶしいものの一つだ。葉子を見た人は男女を問わず目をそばだてた。) (36章, 62)

이러한 패션을 통한 요코의 연출이 사회의 시선을 끌게 만들기는 하지만 육체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심해지는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의 마음은 항상 불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예전 같지 않은 구라치의 태도에 노심초사 애를 태워갈 수밖에 없게 된다. 요코의 지칠 줄 모르는 삶에 대한 집착은 초조와 불안, 시기와 질투로 인한 괴로움, 몸부림치는 듯한 고민과 절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한편에서는 그녀의 육체적 생리질환과 동시에 구라치의 생활이 황폐해져 감으로 해서 그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히스테리증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¹⁰²⁾

야나기 도미코(柳富子)에 의하면 작자는 요코의 히스테리증과 관련하여 연옥(煉獄)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그려나갔다고 했다. 그녀는 미래의 남편 기무라를 속이는 것을 시작으로, 구라치를 실직하게 만들고, 죄 없는 처자를 구라치와 이별시키고, 그녀와 그 여동생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증하기 위해, 구라치를 매국행위라는 악의 길로 가게 만든다. 게다가 또한 경제적 불안정을 보충하기 위해, 기무라에게 진실을 열지 않고, 기무라의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도 송금을 하게 하는 잔혹한 수단을 생각해낸다. 그녀의 남보다 갑절 되는 사치, 원하는 대로 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정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의 재앙 깊은 행위와 동시 평행적으로 아리시마는, 자궁의 병의 진행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2) 安川定男, “『或る女』論,” 『有島武郎論』, 明治書院, 1973, p.245.

안색을 퇴색시키고, 관능의 기쁨을 빼앗는다고 하는, 요코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연옥을 아리시마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병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점점 애욕을 탐내고, 질투에 미쳐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켜 자궁의 격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하면서 요코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49장, 367)라고 절규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할지 똑바로 눈을 뜨고 끝까지 보고 있겠어요” (21장, 161)라고 하는 말에 대응되고 있으며, 이 배후에는 “하느님의 기름뜰에 걸려” (49장, 368) 이러한 연옥 속에서 최후까지 이반자의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삶에 집착하는 여주인공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작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¹⁰³⁾

가와카미 미나코(川上美那子)는 야마모토 요시아키(山本芳明)의 평에 대해 동시대의 수준을 능가한 평가라고 하면서도, 요코를 둘러싼 관계성의 문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리시마는 육체의 병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히스테리를 취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或る女』에 있어서의 병의 의미는 요코의 내면을 읽어내야 하는 차원에서, 후편을 중심으로 하여 광적착란에 갇혀져 가는 그녀의 심층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녀의 광적착란의 근원은 구라치의 불투명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아리시마의 의도에 의한 구도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과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구라치와의 사랑을 회구하지만 점점 공허의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간다.¹⁰⁴⁾

요코의 파멸은 구라치와의 맹목적인 사랑을 위해 그녀가 농락한 주위 사람들의 진실성에 대한 벌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기의 애정에 성실하지 못했고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 약혼자를 배반하고 이용했다. 결국 아리시마가 추구하고자 했던 인생의 가능성을 위한 자아확충과 본능에의 충실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¹⁰⁵⁾

2. 정신적 지주의 부재에 의한 좌절

103) 柳富子, “『或る女』考,”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刊行会, 1985, p.61.

104) 川上美那子, “暗喩(メタファー)としての<或る女>,”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1991, p.70.

105) 金春美, “有島武郎論(Ⅲ),” 「比較文学」, 韓国比較文学会, 1990/12, p.131.

요코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후회한다. 작자는 요코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부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있다.¹⁰⁶⁾ 이것이 『或る女』의 최대의 결점이라고 오사토 야스시사부로(大里恭三郎)는 지적하고 있다.

요코는 연옥에서 밤새도록 신의 틀에 걸려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새벽녘에 문득 딸 사다코의 일이 생각나, 기베와 사다코가 만날 수 있도록 우치다에게 부탁할 생각을 한다. 사다코 일을 부탁하려면 고토에게 부탁해도 될 일인데, 요코는 굳이 목사인 우치다를 다음과 같이 떠올리고 있다.

우치다……그래, 우치다 아저씨에게 부탁해야지. 요코는 그때 이상스럽게도 정다운 생각으로 우치다의 생애를 생각했다. 그 외곶이며 완고하고 고집이 센 우치다의 맨 밑바닥에 조그맣게 숨어 있는 맑은 영혼이 비로소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49장, 368)

(内田……そうだ内田に頼もう。葉子はその時不思議な懐かしさをもって内田の生涯を思いやった。あの偏頗で頑固で意地っばりな内田の心の奥の奥に小さく潜んでいる澄みとおった魂が始めて見えるような心持ちがした。) (49章, 118)

이와 같이 요코가 우치다를 떠올리는 것은 우선은 자신 때문에 희생양이 된 사다코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다코의 장래문제까지 생각하면서 우치다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우치다의 맑은 영혼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육체에 집착하여 관능적일 때와는 또 다른 심리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상이다.

아리시마는 기독교를 접함으로써 죄라고 의식하게 된 성욕과의 진지한 투쟁을 하게 된다. 청교도적인 규율에 의해 심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한층 심해지는 성욕과의 투쟁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에 영적체험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그는 인간이 죄를 범하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지 아니면 인간을 만든 신에게 있는지에 대한

106) 大里恭三郎, “『或る女』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普及会, 1980, p.117.

회의를 품게 되고, 심지어 비합리적인 신을 실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¹⁰⁷⁾ 아리시마는 누구의 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잘못되어 있었어! 이렇게 세상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죄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여간 내게는 뉘우침이 있어. 될 수 있는 대로, 살아 있는 동안에 이것을 보상해 놓지 않으면 안돼. (47장, 355)

(間違っていた……こう世の中を歩いて来るんじゃない。しかしそれはだれの罪だ。わからない。しかしとにかく自分には後悔がある。できるだけ、生きてるうちにそれを償っ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47章, 110)

이와 같이 요코는 누구의 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다. 죄를 고백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보인다. 우치다는 기독교인이면서 요코의 과오를 용서할만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 작자는 우치다야 말로 요코를 잘못된 인생을 견게 한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¹⁰⁸⁾ 기무라와 결혼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갈 때도 요코 주위에는 진정한 길잡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생각 끝에 찾아간 우치다는 냉정하게 요코를 상대도 해주지 않았으며, 주변사람들은 모두가 속물인간들 뿐이었고, 그리고 구라치와 함께 돌아온 사회에서는 언론의 힘으로 요코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린다. 뉘우치고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는 참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요코는 사마리아 여인¹⁰⁹⁾만도 못한 신세가 된 것이다. 그녀가 죄의 여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그녀를 구원해 줄 존재가 있어야 함에도, 그녀가 그렇게 맑은 영혼으로 보고 있는 우치다는 요코의 그런 인생을 방관만하고 있었다. 요코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우치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우치다의 부인에

107) 川鎮郎, 『有島武郎とキリスト教並びにその周辺』, 笠間書院, 1998, p.83.

108) 106번과 동일, p.119.

109) 니고데모가 순수한 혈통인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인이었다. 비천한 존재였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 물을 길으러 가는 여인이다. 그녀는 다섯 남편을 가졌었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자와 살고 있었다. 부도덕의 표상인 그녀가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난다. 이희득, 『결정성경』, 「신약성서」 “요한복음4장,” 한국복음서원, 2003, pp.147~148.

게 “일곱 번을 일흔 번으로 늘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 번쯤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라고요.” (7章, 55)라고 하면서 그 집을 나왔었다. 그녀는 우치다만큼 자신을 이해해주리라 믿고 찾아간 것이지만, 외면을 당하게 되자 차라리 용서를 안 받고 말겠다는 말을 하게 된다. 실지로 요코에게 세속은 용서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일 뿐, 그녀를 위한 정신적 지주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그런 자신의 처지에 분노만 가득할 뿐, 요코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요코는 이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느꼈다.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린 것 같은, 자기를 이 세상에 매달고 있는 실 줄이 하나가 탁 끊어진 것 같은 이상스러운 고독감이 가슴에 다그쳐 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7장, 52)

(大切なものを取り落としたような、自分をこの世につり上げてる糸の一つがぶつんと切れたような不思議なさびしさの胸に逼るのをどうする事もできなかった。)
(7章, 19)

이와 같이 요코는 우치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좌절감을 느낀다. 아리시마는 교회를 탈퇴할 때의 심정을 이러한 요코의 심정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이때 우치다가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충분한 역할이 있었다면 요코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좌절에서 출발하고 있는 요코의 삶의 방식은 사랑의 작열한 연소를 회구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조화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는 조화 있는 생활과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즉 사랑의 결과에는 조화를 가져오도록 지적제어를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것은 또한 자연에 적합한 삶의 방식·자연스러움 속에서 인간의 생성이 좀더 잘 달성되는 삶의 방식을 중히 여긴다. 그러나 본능생활자가 되어 기독교와 불화되어버린 요코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주를 받은 몸이에요. 하나님, 정말은 하나님을 믿기 보다는……믿기보다는 미워하는 편이 어울릴 거예요.” (21章, 161)라고 신에 대한 강한 미움의 감정을

나타낸다. 요코의 이런 감정은 정신적 지주의 부재에 의한 깊은 좌절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코의 좌절감은 사회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것은 목사인 우치다와의 관계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미워하겠다는 것은 바로 우치다를 연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코는 어머니 유언에 의해 정해진 약혼자 기무라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갈 무렵 속물 기독교인에게 굴복한 후 좌절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때만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는 버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치타를 찾아갔던 것인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요코의 심정은 외면당하고 만다. 이것은 아리시마의 경우, 귀국 후의 농장해방문제와 사회주의 연구회, 결혼 등에서 좌절의 흔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¹¹⁰⁾

아리시마는 기독교를 이반(離反)하고 나서 『惜しみなく愛は奪う』(아낌없이 사랑은 빼앗는다)에 본능적 생활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듯이, 그는 있는 그대로에 가까운 의미로서의 자연의 생활을 이상(理想)으로 삼았다. 『或る女』의 요코와 『カインの末裔』(카인의 후예)의 닝에몽은 그 상징적인 인간이다. 결국 아리시마는 그의 생의 세계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¹¹¹⁾

요코는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기독교와는 다른, 자신만의 신앙으로써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과 체념과 다투는(주체를 고양(高揚)하는) 삶의 방식을 관철해 왔었다. 즉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그녀의 신에 대한 의식은, 인생의 중대한 전기에 임하고 있을 때 뿐이고, 통상의 날들에서 약간 파란이 동반되는 정도로는 신앙을 갖지 않는다¹¹²⁾고 볼 수 있다. 야마다 아키오(山田昭夫)는 우치다를 연상시키는 고토에 대하여 요코로 하여금 양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인물이라고 했다.¹¹³⁾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아리시마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연사는 무용한 것이었음

110) 103번과 동일, p.60.

111) 鈴木範久, 『内村鑑三をめぐる作家たち』, 川大学出版部, 1980, p.108.

112) 高山亮二, 『有島武郎の思想と文学—クロボトキンを中心に—』, 明治書院, 1993, p.246.

113) 渡邊凱一, 『晩年の有島武郎』, 渡辺出版, 1978, p.137.

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통해 배운 사랑을 아리시마 자신의 언어로써 혼에 정착되어 있던 것을 그리려 했다. 이것은 간음에 대한 여자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휘트먼의 시의 해석을 통해 얻게 된 산물이다. 그 메카니즘이 결국 우치무라-우치다-월드휘트먼이라는 변화가 『或る女』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아닌가¹¹⁴⁾ 하는 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3. 타의적인 죽음에 대한 반항

『或る女』는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난 여자가 자기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발버둥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자는 요코의 제대로 혼란받지 못하고 능력이라고는 없는, 오로지 자신의 오염한 미모만을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본능을 드러내면서 존재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요코는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녀는 행복의 절정이라 느낄 때 죽음을 생각한다. 여기에는 작자의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다.¹¹⁵⁾ 그녀는 삶에 대한 본능만큼 죽음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의 내리막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의 열정의 순간이 사그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하게 갖는다. 이러한 요코의 죽음에 대한 심상을 다음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다.

내 행복의 정상이 바로 지금이라고 누구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순간 즐겁게 죽을 테야. 이런 행복을 보고 난 뒤 내리막길까지 살아 있게 된다면 나는 싫어. 그렇다면 이런 행복까지도 어느 때든 내리막길이 될 때가 있는 것일까? (26장, 199)

(この幸福の頂上が今だとだれか教えてくれる人があったら、わたしはその瞬間に喜んで死ぬ。こんな幸福を見てから下り坂にまで生きているのはいやだ。それにしてもこんな幸福でさえがいつかは下り坂になる時があるのだろうか) (26章, 20)

114) 植栗弥, 『有島武郎研究』, 有精堂, 1990, p.191.

115) 103번과 동일, 宮野光男, “有島武郎研究,” p.67.

이와 같이 요코는 열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정열을 불태워야 하는 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삶의 절정의 순간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성본능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본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기 파괴적인 타나토스(Thanatos)¹¹⁶⁾의 성(性) 본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뭔가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 맘이 놓이지 않게 되어 환락을 위한 에로스로서의 성이 아닌 파괴의 본능을 나타내게 된다.¹¹⁷⁾ 이러한 파괴적인 본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그녀의 사랑은 서로의 목숨에 대한 확인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되고 목숨에 대한 강한 애착은 살아 있음을 승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그녀의 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목숨!……목숨!! 목숨!!!」(중략) 구라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서 떠나 있던 요코 자신을 끌어안았다. (33장, 249)

(「命!……命!! 命!!!」(中略)倉地において今まで自分から離れていた葉子自身を引き寄せた。) (33章,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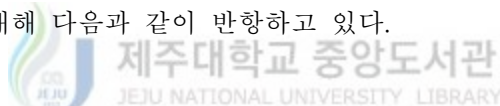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완벽한 사랑이길 바라는 마음이,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자의 인간성을 다 빼앗아버리는 악마적인 정념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쪽에서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목숨을 서로 확인하고 싶다는 열정을 낳는다. 이것은 구라치와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심리와는 모순되게 두 생명을 융합시키는 것에 의해 두 사람의 추악함까지도 완전히 끌어안고, 살아있는 것의 확실함을 승화시키고 싶다고 하는 요코의 심리상태이다. 파괴적인 죽음과 정열적인 생을 향한 모순되는 두 개의 얼굴이 사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떨어져 나갔던 자신을 끌어안음으로써 자기분열의 재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리시마에게 있어서의 요코의 죽음은 작품의 구성상에서부터 이미 전제되어 있던 것이지만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요코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수술의 실패로 나타난다. 작자가 요코에게 죽음

116) 프로이드는 이드의 본능으로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로 구분했다. 정인문, 『문학과 일본문학』, 영한출판, 1999, p.298.

117) 山田昭夫編, “有島武郎,” 『鑑賞 日本現代文学』, 角川書店, 1983, p.306.

을 선택할 자유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여성인식·인간인식이 각별했기 때문일 것이다. 요코의 내부의 자연스러움에 따라 이반의 종국이 파멸로 이어지는 것은 이런 종류의 여주인공—결혼습속에서 벗어난 도리에 어긋나는 사랑에 빠져, 비극적 파국을 맞이하는—을 등장시키는 서양의 근대소설(희곡)에 있어서 동서를 막론하고 이미 일정한 패턴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주인공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사정은 다르다. 많은 소설이 『或る女』와는 달리, 여주인공의 자살로 끝나고 있다. 『或る女』의 구상에 있어 영향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보바리 부인』¹¹⁸⁾, 『안나카레니나』¹¹⁹⁾, 『헛다가블러』¹²⁰⁾ 등은 여주인공들이 모두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 보바리 부인은 약국의 약병에서 비소를 한 움큼 쥐자마자 그것을 삼켜버리고, 그로부터 의사인 남편의 눈앞에서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간다. 안나는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헛다는 권총으로 관자놀이를 쏘아 자살한다. 『或る女』는 이러한 소설들의 영향을 받았으나 주인공 요코는 자기의지의 자살이 아니라 병리학적인 이유로 죽음을 맞는다.¹²¹⁾ 그녀는 타의적인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항하고 있다.



『그만둬 주세요! 미처서 죽는 한이 있어도 살해를 당하지는 않겠어요. 그만둬……살인자!』 이렇게 생각했는지 말했는지, 스스로도 어떻다고 알아볼 수 없는 채 요코는 몸부림쳤다. 『살겠어, 살테야……, 죽는 건 싫어……살인자!』 요코는 안간힘을 다해 싸웠다. (48장, 365)

(やめてください。狂気で死ぬとも殺されたくはない。やめて……人殺し) そう思ったのかいったのか、自分ながらどっちとも定めかねながら葉子はもだえた。「生きる生きる……死ぬのはいやだ……人殺し!……」葉子は力のあらん限り戦っ

-
- 118) 프랑스의 작가 구스타브 플로베르의 장편소설. 1857년 간행. 부제는 ‘지방 풍속’으로 되어 있다.
- 119)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1875~1877년 작. 이 작품에는 모두가 19세기 러시아 귀족계급의 결혼생활 (오브론스키와 도리, 레빈과 기티, 가레닌과 안나)이 그려져 있다.
- 120)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의 4막 희곡. 1890년 작품. 여주인공 헛다는 미모와 재기를 타고 났으면서도 자아(自我)가 강한, 예고이즘(이기주의)이 자신과 남을 모두 파멸시켜버리는 모습을 그린 작자 중기(中期)의 작품이다.
- 121) 秋山公男, “『或る女』—愛と性の特質,” 「文学論叢」, 愛知大学文学会, 2002, p.42.

た) (48章, 116)

이와 같이 요코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와는 달리 타의적인 죽음에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죽음에 저항한다. 자기의지에 의해 선택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수술 전날 요코는 고토가 보낸 꽃다발과 편지를 받게 되는데, 편지에는 구라치가 군사 스파이가 된 것이 알려지자 모습을 감췄고, 그에게는 두 사람 정도의 첩이 있다고 하는 신문보도 내용을 본다. 요코는 그 보도 내용을 신기하게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 부르는 죽음이 아닌 타의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그때 별안간 죽음이—죽음의 문제가 아닌—죽음이 분명히 요코의 마음속에 나타났다.(중략) 이것은 요코가 태어난 이래 꿈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제까지 요코가 죽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죽음을 불러들이는가 하는 일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 그 자체가 어정어정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47장, 353)

.....
(その時突然死が——死の問題ではなく——死がはっきりと葉子の心に立ち現われた。(中略)それは葉子が生まれてから夢にも経験しない事だった。これまで葉子が死の問題を考えた時には、どうして死を招き寄せようかという事ばかりだった。しかし今は死のほうこそと近寄って来ているのだ。) (47章, 109)

이와 같이 요코는 수술이 잘못될 것을 예상하면서 죽음이 가까이에 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깨진 거울을 보며 불안한 생각이 들었고 창백한 소녀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토의 방문은 죽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드디어 수술의 실패라는 잘못된 판정에 의해 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요코는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아리시마는 요코를 우치다의 세계로 향하게 하면서도

그의 품에서 기쁨과 평안 속에 숨을 거두게 하지 않았다. 종장에서 요코와 우치다의 만남에 대해서는 가능성만을 암시한 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끝이 났다. 어쨌든 창작에 있어서는 신의 바람에 역행한 결과, 병과 망집과 고뇌로 끌려 다닌 요코에게 그 행위의 궁극적인 귀결로서의 죽음을 실현하고 있다.¹²²⁾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죽음을 통한 최후의 결정적인 속죄는 요코의 운명에 대한 정체불명의 어두운 힘에 의한 심판이었다고 생각된다. 만일 요코가 정당하게 신에 의한 심판을 받았다면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리시마는 『或る女』의 마지막 장에서 요코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녀의 원치 않는 죽음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죄는 죽음이라는 의식(儀式)의 속죄를 행함으로써 용서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다. 요코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자신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줄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는 생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작자는 요코에게 모든 것을 잃어지고 가게 했다. 어쩌면 그것은 근대일본이 안고 있는 부정의 일체를 요코로 하여금 대신 안고 가게 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122) 49번과 동일, 山田俊治, “『或る女』前編の改稿問題,” p.124.

V. 결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는 그런 의도를 담아 여주인공 요코의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상태와 요코의 종말에 있어서의 죽음과 관련된 심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대상황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각성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국가의 신교육이라는 제도적인 틀에 의해 ‘良妻賢母’를 양성하였고, 이에 여성은 젠더적인 역할을 강요받아야만 했다. 본능에 눈을 뜨기 시작한 요코는 사회제도, 인습, 습성적인 사슬에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기독교 부인동맹의 부회장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어머니 오야사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어머니와 관련된 기독교는 속물이라 치부하면서 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아리시마의 배교(背教)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시마의 배교의 배경에는 러일전쟁에 대한 기독교 나라의 방관적 태도, 귀국 후의 결혼문제, 농장해방문제, 사회주의 연구 등 아리시마가 안고 있던 좌절의 요인들이 배교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의 좌절의 상황이 문학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된다.

요코는 배운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한 자신의 상황이 남성에 의해 노예적인 상황에 놓여졌음을 깨닫고 남자에 대한 반항심이 커져 간다. 요코는 점차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남자를 경제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가 아닌 생명적 욕구에 의해 자유인로서의 행보를 하는데 필요한 대상으로서 자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속물 그리스도에 대한 이반(離反)이며 자신의 자유인 인생에 있어서 본능생활의 실천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코가 자신의 육체를 걸고 생명이라고 여기는 본능생활자가 되어 구라치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온 후, 외부적으로는 언론의 힘에 의해 요코의 사회생활을 제

한받고, 내부적으로 자신의 딸 사다코에 대한 모성과, 자신과 구라치의 사랑이라는 양립상태에서 번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다코를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요코는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라치와의 사랑을 연소시키면서, 마침내는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떠나 있던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능동적인 자유인로서 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려 한다.

작자는 이와 같은 자유인로서의 요코의 행보에 동시에 병리적인 히스테리증을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육체는 자신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가는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된다. 아리시마는 엘리스의 『Studies in Psychology of sex』 (『性の心理学的研究』)를 읽고 인간에 관해서 과학적·의학적 지식을 『或る女』에 역점을 두고 묘사하였다. 아리시마는 히스테리증이라고 하는 병리적 현상을 단지 병리로서가 아니고, 이것 또한 한편에서는 강렬한 개성이 환경과의 사이에서 모순갈등 끝에 생겨난 비극적 양상의 하나로 보았다.

요코는 가부장적 사회의 근대를 사는 여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께 견안을 수밖에 없었고 모성과 자아(自我)로 분열하는 이원 대립의 양상에서 부권적인 내면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억압된 채 숨겨져 온 본능에 의거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전체성의 회복을 회구하고 살았던 그녀는 육신의 병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와 환경의 희생물이 된 요코의 생은 실로 상징적이고, 그 생의 발자취는 일본 근대를 살았던 여성의 은유로서 그 의미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시대적 상황의 관점에서 요코의 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작가의 여성인식과 사회인식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다는 점과 그러한 작가의 의식이 작품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본고의 『或る女』 연구가 시대적 상황이라는 단편적인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단편적인 차원을 넘어서 유기적 관점에서의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단행본】

- 1) 알랭 바니에, 『정신 분석의 기본 원리』, 김연권 역, 솔출판사, 1999
- 2) 정인문, 『근대일본문학/연구방법론』, 제이앤씨, 2004
- 3) " 『일본근대문학사의 재인식』, 영한출판, 2001
- 4) " 『문학과 일본문학』, 영한출판, 1999
- 5) 和田一외, 『일본연구-역사·문화·정치·산업』, 동양문고, 1994
- 6) 나카무라 미쓰오, 『일본의 근대소설』, 유은경 역, 동인출판, 1995
- 7) 미시마 유키오, 『일본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정선태 역, 소명출판, 2002
- 8) 앙드레 베르제스 외, 『인간학·철학·형이상학』, 남기영 역, 삼협종합출판부, 2002
- 9) 자크리 고프, 『연옥의 탄생』, 최애리 역, 문학과 지성사, 1996

【논문】

- 1) 유은경, “有島文学에 나타난 ‘性’의 양상,” 「일본어문학」, 일본어문학회, 1998
- 2) 金春美, “有島武郎論(Ⅲ),” 「比較文学」, 韓国比較文学会, 1990/12
- 3) 류리수,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어떤 여자(或る女)』 小考,” 「일본근대문학산책 제5호」, 일본근대문학회, 1998

2. 일본문헌

【단행본】

- 1) 高山亮二, 『有島武郎の思想と文学 ―クロボトキンを中心に―』, 明治書院, 1993
- 2) 現代日本文学全集21, 『有島武郎全集』, 筑摩書房版, 1954
- 3) 安川定男, 『有島武郎論』, 明治書院, 1973
- 4) 西垣勤, 『有島武郎論』, 有精堂, 1971
- 5) 西垣勤, 『白樺派作家論』, 有精堂, 1981
- 6) 山田昭夫, 『有島武郎』, 角川書店, 1983
- 7) 山田昭夫, “有島武郎,” 『鑑賞 日本現代文学』, 角川書店, 1983
- 8) 宮城道子, 『近代女性史』, 現代書館, 1984
- 9) 菊地 弘, 『有島武郎』, 審美社, 1986
- 10) 植栗 弥, 『有島武郎研究』, 有精堂, 1990
- 11) 鈴木範久, 『内村鑑三をめぐる作家たち』, 玉川大学出版部, 1980
- 12) 渡邊凱一, 『晩年の有島武郎』, 渡辺出版, 1978
- 13) 本多秋五, 『有島武郎論』, 現代日本文学大系35, 精興社, 1987
- 14) 川上美那子, 『有島武郎と同時代文学』, 審美社, 1993
- 15) 江種満子, 『有島武郎論』, 桜楓社, 1984
- 16) 石丸晶子, 『有島武郎 一作家作品研究一』, 明治書院, 2003
- 17) 田辺健二, 『有島武郎論』, 溪水社, 1991
- 18) 宮本百合子, 『文学にみる婦人像』, 新日本出版社, 1973
- 19) 江種満子, 『ジェンダーで読む「或る女」』, 翰林書房, 1997
- 20) 長谷川泉, 『近代日本文学思潮史』, 至文堂, 1985
- 21) 『樋口清之のにつぼん女性史発掘』, 婦人画報社, 『婦人画報』誌に連載 1978/4~1979/1
- 22) 川鎮郎, 『有島武郎とキリスト教並びにその周辺』, 笠間書院, 1998
- 23) 中村真一郎, 『この百年の小説』, 新潮選書, 1974
- 24) 鹿野政直, 『近代日本思想案内』, 岩波文庫別冊14, 2000
- 25) 三好行雄外, 『近代文学4』, 有斐閣双書, 1977

【논문·잡지】

- 1) 川上美那子, “『或る女』の系譜,”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特集：いまなぜ有島武郎か」, 学灯社, 2003/6
- 2) 『 紀要』17, 東京女子大付属比較文化研究所, 1964
- 3) 大里恭三郎, “『或る女』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普及会, 1985
- 4) 外尾登志美, “『或る女のグリンプス』から『或る女』,”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刊行会, 1986
- 5) 川上美那子, “暗喩(メタファー)としての<或る女>,”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1991
- 6) 江藤茂博, “『或る女』後編の構成に関する試論—木部孤筈と定子形象の意味—,”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1986/6
- 7) 石丸晶子, “有島武郎の方法—リアリズムへの志向と本能主義の狭間から—,” 「国語と国文学」,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1989/5
- 8) 柳富子, “『或る女』考,”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刊行会, 1985
- 9) 古田精一, “有島武郎,” 「解釈と鑑賞」, 至文堂, 1997
- 10) 亀井俊介, “日本的キリスト教の周邊,”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 1978
- 11) 福田準輔, “「或る女」・有島武郎,” 「国文学」, 学灯社, 1991/1
- 12) 山田俊治, “超越的なものへの闘い/有島文学の可能性,”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特集：いまなぜ 有島武郎か」, 学灯社, 2003/6
- 13) 中嶋照美, “有島武郎 『或る女』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普及会, 1980
- 14) 宮野光男, “有島武郎研究,”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3」, 学術文献刊行会, 1985
- 15) 福本彰, “見事な錯覚の生の情念,” 「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1985/4
- 16) 福田準之輔, “有島武郎,” 「国文学」, 学灯社, 1986/9
- 17) 石丸晶子, “有島武郎・或る女,” 「国文学」, 学灯社, 1988/7

- 18) 江種満子, “有島武郎-『或る女』/神近市子/伊藤野枝,” 「国文学」, 学灯社,
1992/11

【총서】

- 1) 『日本文学研究叢書』 「白樺派文学」, 有精堂, 1974
- 2) 『文学論叢』, 秋山公男, “『或る女』一愛と性の特質,” 愛知大学文学会, 2002
- 3)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有島武郎」, 有精堂, 1986

【사전】

- 1) 新村出編, 『広辞苑』第五版, 岩波書店, 1998
- 2) 佐藤亮一, 『日本文学小辞典』, 新潮社, 1975
- 3) 이건복, 『철학 대사전』, 동녘, 1997
- 4) 데이비드 스탠, 『심리학 용어사전』, 정태연 역, 끌리오, 1999

【성서】

- 1) 이희득, 『결정성경』,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한국복음서원, 2003
- 2) 김구인,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요한 묵시록 제17장,” 분도출판사,
2001



※ 본 논문의 외래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 7) 외래어 표기법에 준함.

<Abstract>

The Study of "Aruonna" Written by Takeo Arisima

- Focusing on the State of Mind of the Leading Character, Yoko -

Hong, Eun J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 Bong

Major in Japanes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ruonna"(A Lady), the masterpiece of Takeo Arisima, is a novel accomplished over a decade, from 1911 to 1919. This novel is a Japanese serious novel, the most important work of the Japanese naturalism that converted the western naturalism to the Japanese naturalism, and a romantic literature that looked at the reality with the view of a realist. "Aruonna" is a novel accomplished through the affliction of the author, Takeo Arisima, in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Japanese society of the modern age which arose in the time of conflict during Meiji 20s and 30s (1890~1900). In order to find a new possibility for solving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and meaningful to get an unchangeable message for human rights through reading "Aruonna".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In this thesis, the state of Yoko's mind outwardly against the society due to the appearance of the real social circumstance of the time, the essential state of her mind inwardly walking against her social circumstance, and the state of her mind related to her death have been studied.

Yoko is a character set as a free woman in the beginning of the modern age of Japan. She is active and keen, and shows her attitude against the regulation or the custom of her community. She finally escapes from the frame of the system at the time of a confliction and a conversion around the matter of the gender of people, and orients herself to the future of her life as a free woman.

She finally loves Kurachi although her love for Kurachi shows a confliction due to the confliction with maternal love. It is a practice intending that she will not return to Kimura, which is against a snob. Yoko is standing against the custom by sacrificing Kimura. In her case, sex is the only way to maintain her life lack of knowledge learned.

Arisima constructed that the death is also essential in her instinctive love in the story. Although she causes the death essentially, she opposes to the physical power because she faces the death due to the power. Yoko tries to control the death with her will, and looks forward to it. However, she reacts against the death she encounters suddenly. Finally, Yoko, living her life as a free woman, can not get judged by God, but faces the death by the physical judge. Although Arisima shows the end of a life through the unexpected death of Yoko, it is thought that he (the author) adds a concept of continuance for the endless will for her life she does not give up reacting against it.

In conclusion, it has been found in this novel that the author had an advanced idea about the protection of women's right in the society.

감사의 글

왕벚나무 숲 터널을 지나 교정을 들어서면 그곳엔 언제나 젊음의 천국이었습니다. 싱그러운 젊음에 취해 덩달아 20대 소녀가 된 기분으로 맘껏 젊음을 누리며 도서관으로 강의실로 옮겨 다닌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만학하는 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신 김성봉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심사에 애써주신 김난희 교수님과 진은숙 교수님, 그리고 언제나 진심어린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창익 교수님, 서두르지 말라는 명언으로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셨던 김승한 교수님, 철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강태국 교수님 등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와 모든 교수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한국방송대학교 이경수 교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본문학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이애숙 교수님, 한일 관계사를 통해 역사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신 이영 교수님 등 일본학과 교수님들께 늦게나마 감사인사 올립니다.

멀리 타국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주시는 다카야마 하루코(高山春子) 선생님과, 현재 “한국의 향수”라는 소설을 집필하고 계시는 야마카와 슈헤이(山川修平)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거문제에서 매듭지을 일이 있다고 수없이 일본을 드나드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중곤 선생님과 ‘나고야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대표이신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선생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보내주신 나고야 변호단의 이와쓰키 고지(岩月浩二)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연구와 교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강의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제주산업정보대학 고광종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교생활을 하는데 외롭지 않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시는 선후

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발전적인 행보에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제주도 문화유산 해설사 좌동렬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다는 핑계로 격조했던 초동친구들과 모든 지인들에게 이 논문으로 마음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들의 희생에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으로 이 논문을 행운의 징표로 전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누나의 논문에 관심을 가져주었던 제주대학교 언론출판센터의 정용복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동생 부부 김정희, 홍권수와 특히 미국에서 생명공학 박사과정을 힘겹게 가고 있는 막내 부부 김안나, 홍권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누나의 결실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지켜봐준 이춘행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결실에 대해 누구보다 기뻐해주실 부모님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